

2006학년도 진로 의식조사

- 제주대학교 3, 4학년 재학생을 중심으로 -

김 경 순* · 김 두 화**

〈 목 차 〉

I. 서 론	2. 취업선택
II. 조사대상 및 방법	3. 취업관련 대학생활과 면학
1. 조사대상	4.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안
2. 조사도구 및 내용	IV. 요약 및 결론
3. 조사실시 및 자료처리	참고문헌
III. 결과분석 및 해석	<Abstract>
1. 인적사항과 진로선택	

I. 서 론

청년기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직업의 결정이다. 이때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진로결정 시기로서, 이 시기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여생이 결정된다(김충기, 2000). 즉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한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일생동안 생계유지와 사회적 역할과 봉사, 그리고 자아실현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유계식, 이재창, 1997). 이와 같이 직업은 한 개인의 삶의 본질을 결정하고, 삶의 내용과 수준,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야 일생동안 직업에 만족하게 되며, 그것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의 필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교수

요성을 김충기(2003)와 Isaacson & Brown(2000)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첫째, 고학력 추세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시기가 대학으로 연기되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부재가 대학의 진로지도 수요를 촉발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진학지도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작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해주는 진로지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의 변화가 진로지도를 필요로 한다. 최근에 와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기술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함으로 해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직업의 내용도 분업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 첨단과학 분야의 발전, 직업세계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넷째, 학문의 분화와 통합이 진로지도의 수요를 유발한다. 특히 요즈음 추진되고 있는 학부제와 복수전공제, 그리고 전공과목의 축소와 선택과목의 확대는 더욱 현명한 진로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대학의 인간교육 부재이다.

이처럼 대학은 지식정보의 생성 및 가공, 그리고 활용을 주도하는 지식정보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의 위기’, ‘대학의 종말’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안관수, 2006). 또한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과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른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대졸 실업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이지훈, 이종구, 2004), 외환위기(IMF)를 겪으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은 대졸 청년취업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표(2005)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5년 12월 지표에 의하면 청년실업자에 해당되는 20~29세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청년 실업률 7.7%, 실업자 35만 2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실업률 3.7%, 실업자 88만 7천명과 비교하면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약2배 수준이다. 그리고 최근 4년간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대학 졸업자의 경우 6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졸업자는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교육통계편람, 2001). 심지어 2005년 2월 기준으로 40%를 밑도는 낮은 취업률로서 전국의 대학생들은 앞으로 다가올 취업에 비관적 현상마저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대졸 청년실업난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은 대학의 취업 및 직업 진로지도의 기능 미비를 들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는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인성, 경제적 여건, 직업적 열망, 학부모의 기대와 영향, 지도교수의 의견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선택·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진로교육은

단순한 검사의 실시, 또는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 재학 중에 체계적인 취업 및 진로지도의 부재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생애 첫 직장을 얻기까지 긴 직업탐색 기간을 필요로 하며, 자칫 장기적인 실업상태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안관수, 2006).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중도 자퇴, 전과, 타교 편입 등과 젊은 직장인들의 잦은 이직문제, 또한 즉흥적인 진로선택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자기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모색과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바람직할 리가 없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에 만족하며 잘 적응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박행모, 문승태, 2005).

따라서 이러한 대졸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대학에서의 지속적인 직업 진로지도를 통해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이 순조롭도록 취업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며, 산학간의 성공적인 수요와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인력양성 시스템의 질적 혁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식기반 사회의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대학교육의 질적인 변화와 더불어 직업 환경변화에 따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업 진로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선택을 돕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개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토대위에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 선택하여 본인이 선택한 진로에 만족하고 적응하며,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분담하고 나아가 자아실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의 흥미, 적성, 능력, 성격, 신체적 조건, 가치관을 중심으로 알맞은 각종 정보활동을 전개하며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진로선택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흥미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자기탐색과 이해의 토대 위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져야 후회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진로계획은 직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대학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분석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심각한 청년실업난 시대에 취업은 곧 대학경쟁력이 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직업 진로지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늘어나는 대졸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의 단과대학, 학년, 성별에 따라서 진로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우리 대학생들의 진로인식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대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진로상담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229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7명을 제외한 20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한 재학생들의 단과대학, 학년, 성별 분포는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단과대학, 학년, 성별 조사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단과대학	인문대학	31	15.3	
	법정대학	26	12.9	
	경상대학	61	30.2	
	사범대학	7	3.5	
	생명자원과학대학	4	2.0	
	해양과학대학	17	8.4	
	자연과학대학	19	9.4	
	공과대학	37	18.3	
	합 계	202	100	
학 년	3 학 년	152	75.2	
	4 학 년	50	24.8	
	합 계	202	100	
성 별	남	군 필	101	50.0
		미 필	7	3.5
		면 제	5	2.5
	여	89	44.1	
	합 계	202	100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과 진로선택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졸업 후 진로선택, 진로준비 시작 시기,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 졸업 후 진로선택 가능성, 진로상담 대상, 자격증 취득여부, 인생에서 소중한 것

2) 취업선택

취업할 기업체 선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이상적인 채용방법, 취업하고 싶은 직종, 희망하는 최저 보수액,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 직업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

3) 취업 관련 대학생생활과 면학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면학태도, 대학생생활 충실여부,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 대학생생활에서 어려웠던 점, 대학생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대학생생활에 불만족한 이유, 우리 대학의 강점, 우리 대학의 약점

4)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안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 진로상담에 대한 필요성 여부, 교수가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 취업할 때 자신없는 분야, 취업할 때 자신있는 분야, 취업할 때 장애 요인, 취업을 위해 필요한 노력,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

3. 조사실시 및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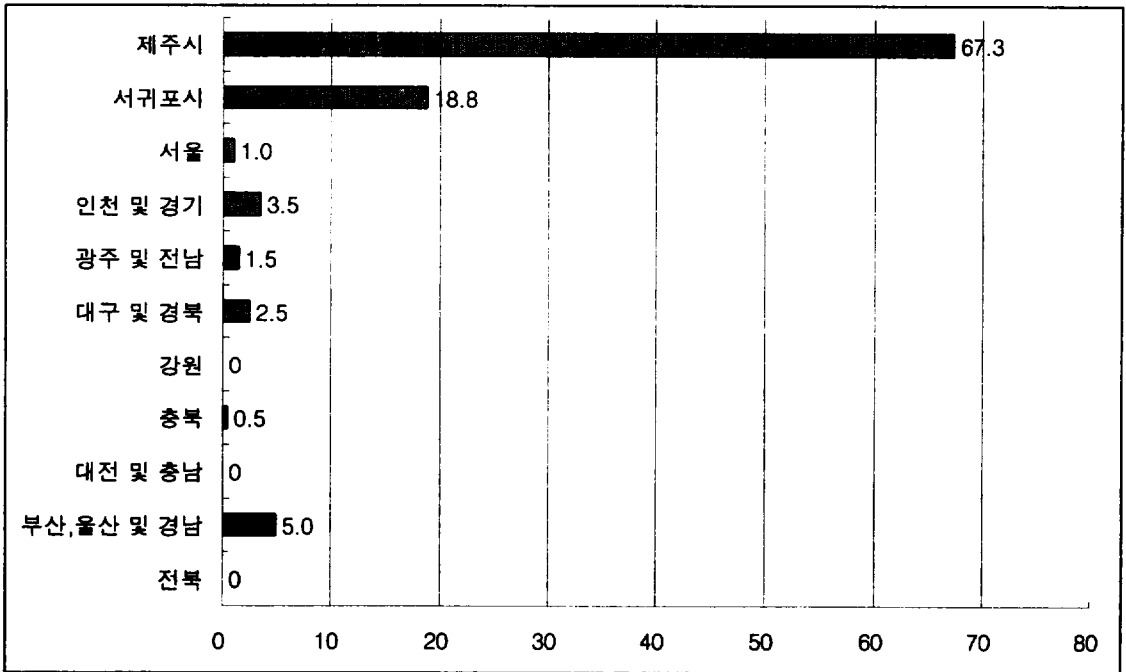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06년 11월 우리 대학교 취업교과목 강의시간에 25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보인 229명 중 불성실한 응답자 27명을 제외한 20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분석 및 해석

1. 인적사항과 진로선택

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2006학년도에 실시된 진로 의식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는 아래의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재학생 전체의 67.3%가 '제주시' 출신이었고, '서귀포시' 18.8%, '타 시·도' 출신은 12.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 출신이 87.4%였으며, '타 시·도' 출신은 13.9%로 나타났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부산, 울산 및 경남' 출신이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 및 경기' 출신이 3.5%, '대구 및 경북'이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진로 의식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대 31명(15.3%), 법정대 26명(12.9%), 경상대 61명(3.5%), 사범대 7명(3.5%), 생명대 4명(2.0%), 해양대 17명(8.4%), 자연대 37명(9.4%), 공과대 37명(18.3%)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 152명(75.2%), 4학년 50명(24.8%)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13(55.9%), 여자가 89(4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단과대학, 학년, 성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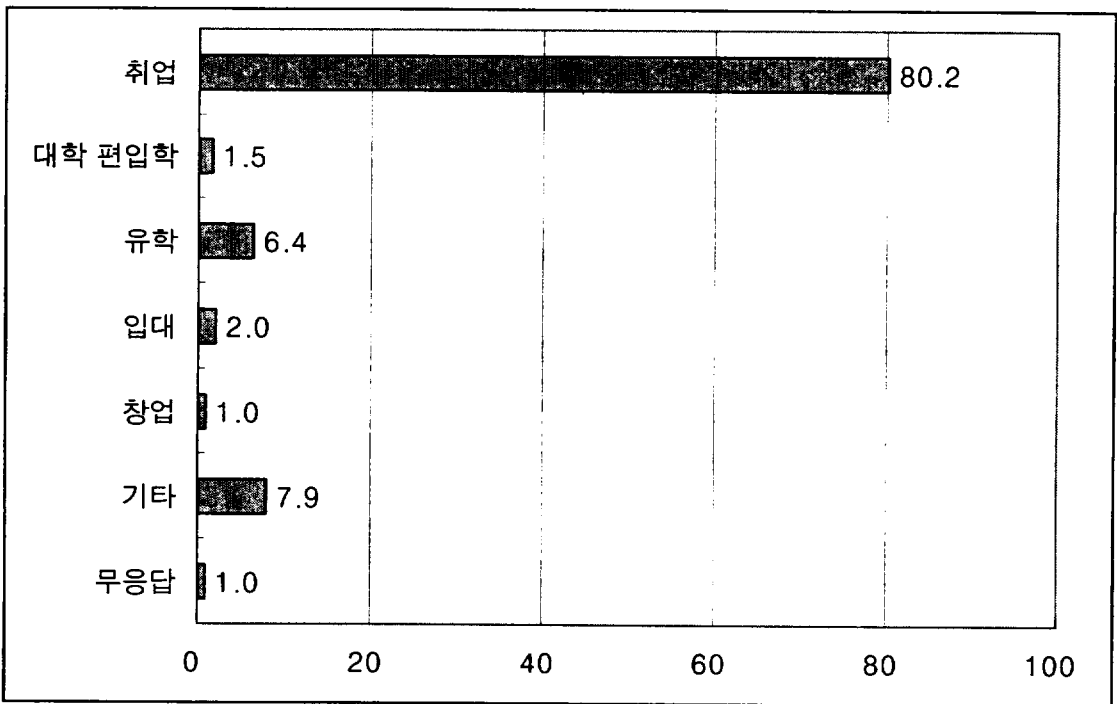
<표 3-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제 주 시	21 (67.7)	22 (84.6)	32 (52.5)	6 (85.7)	2 (50.0)	9 (52.9)	13 (68.4)	31 (83.8)	106 (69.7)	30 (60.0)	74 (65.5)	62 (69.7)	136 (67.3)
서 귀 포 시	8 (67.7)	4 (15.4)	10 (16.4)	1 (14.3)	1 (25.0)	4 (23.5)	6 (31.6)	4 (10.8)	25 (16.4)	13 (26.0)	24 (21.2)	14 (15.7)	38 (18.8)
서 울			1 (1.6)					1 (2.7)	2 (1.3)		1 (0.9)	1 (1.1)	2 (1.0)
인 천 및 경 기	1 (3.2)		4 (6.6)			2 (11.8)			5 (3.3)	2 (4.0)	4 (3.5)	3 (3.4)	7 (3.5)
광 주 및 전 남			3 (4.9)						2 (1.3)	1 (2.0)	1 (0.9)	2 (2.2)	3 (1.5)
대 구 및 경 북			5 (8.2)						4 (2.6)	1 (2.0)	2 (1.8)	3 (3.4)	5 (2.5)
충 북			1 (1.6)						1 (0.7)		1 (0.9)		1 (0.5)
부 산, 울 산 및 경 남	1 (3.2)		5 (8.2)		1 (25.0)	2 (11.8)		1 (2.7)	7 (4.6)	3 (6.0)	6 (5.3)	4 (4.5)	10 (5.0)
계	31 (15.3)	26 (12.9)	61 (30.2)	7 (3.5)	4 (2.0)	17 (8.4)	19 (9.4)	37 (18.3)	152 (75.2)	50 (24.8)	113 (55.9)	89 (44.1)	202 (100)

2) 졸업 후 진로선택

진로 의식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선택은 [그림 3-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80.2%, '기타' 7.9%, '유학'을 원하는 학생이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제주대 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2] 졸업 후 진로선택

단과대학별로는 <표 3-2>에 나타난 것 처럼 사범대는 조사에 참여한 7명 모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대의 경우, 전체 19명 중 63.2%인 12명만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3학년의 경우, 83.6%의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4학년의 경우에는 70.0%의 학생만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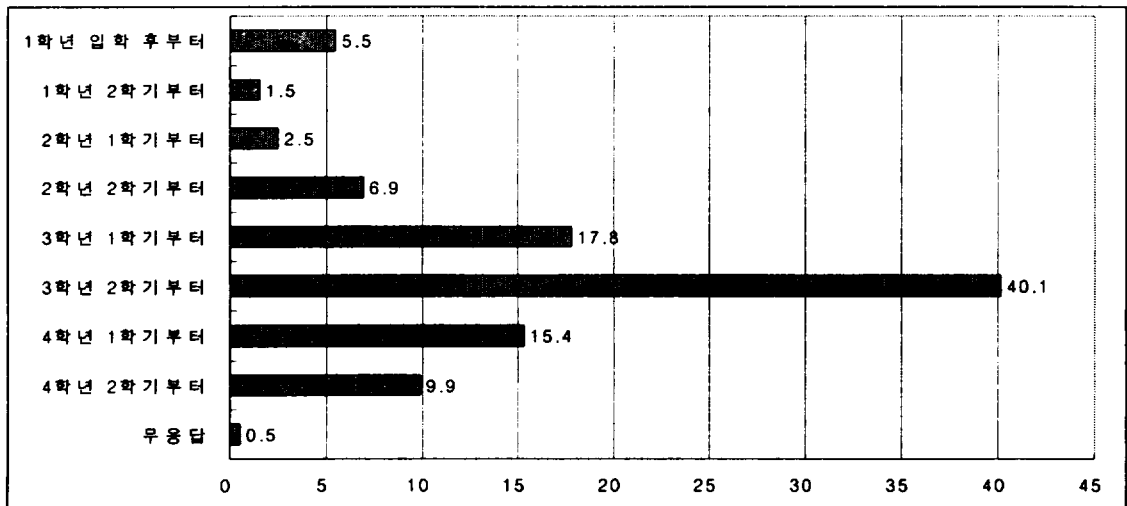
<표 3-2> 졸업 후 진로선택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취업	24 (77.4)	23 (88.5)	50 (82.0)	7 (100)	3 (75.0)	15 (88.2)	12 (63.2)	28 (75.7)	127 (83.6)	35 (70.0)	92 (81.4)	70 (78.7)	162 (80.2)
대학 편입학	1 (3.2)		2 (3.3)						2 (1.3)	1 (2.0)		3 (3.4)	3 (1.5)
유학	4 (12.9)	2 (7.7)	5 (8.2)				1 (5.3)	1 (2.7)	8 (5.3)	5 (10.0)	6 (5.3)	7 (7.9)	13 (6.4)
입대			1 (1.6)			1 (5.9)	1 (5.3)	1 (2.7)	2 (1.3)	2 (4.0)	4 (3.5)		4 (2.0)
창업								2 (5.4)	1 (0.7)	1 (2.0)	2 (1.8)		2 (1.0)
기타	2 (6.5)	1 (3.8)	1 (1.6)		1 (25.0)	1 (5.9)	5 (26.3)	5 (13.5)	10 (6.6)	6 (12.0)	7 (6.2)	9 (10.1)	16 (7.9)
무응답			2 (3.3)						2 (1.3)		2 (1.8)		2 (1.0)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3) 진로준비 시작 시기

진로준비 시작 시기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을 보면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40.1%가 '3학년 2학기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학년 1학기'(17.8%), '4학년 1학기'(1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진로준비 시작 시기

단과대학별로는 <표 3-3>에 나타난 것 처럼 진로준비를 시작하는 시기가 약간씩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런데 학년별로 비교를 해보면 3학년의 경우, 49.3%의 학생들이 '3학년 2학기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4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 1학기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6.0%, '4학년 2학기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4.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3학년 때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하지만 4학년이 되면 보다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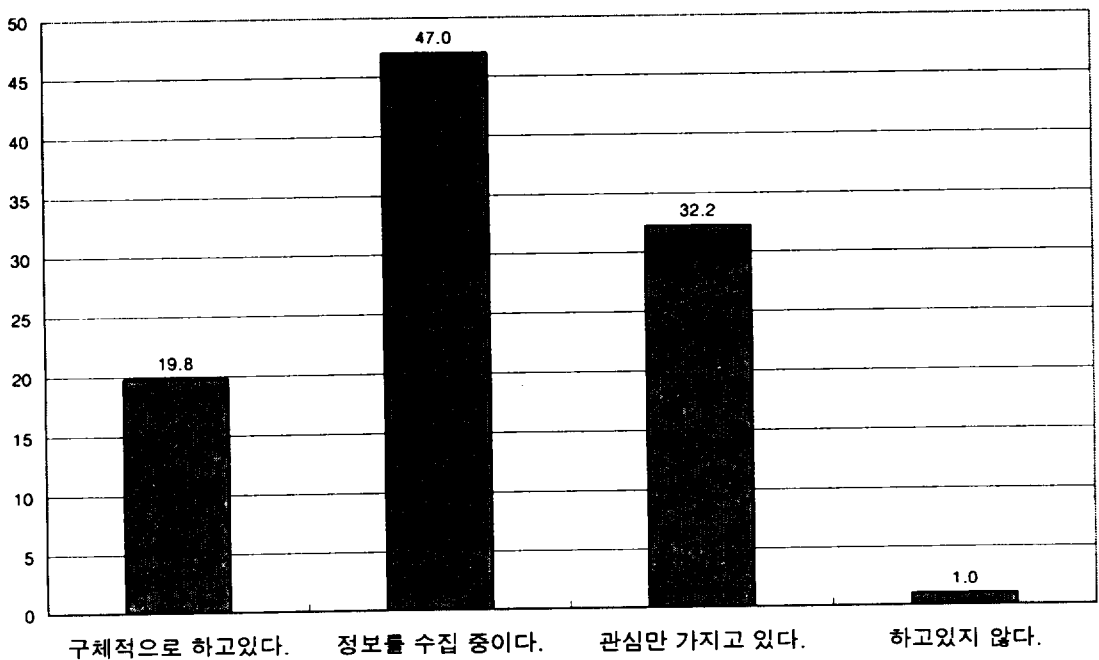
<표 3-3> 진로준비 시작 시기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1 학 년 입학후부터	4 (12.9)	1 (3.8)	2 (3.3)		1 (25.0)		2 (10.5)	1 (2.7)	8 (5.3)	3 (6.0)	4 (3.5)	7 (7.9)	11 (5.4)
1 학 년 2학기부터	2 (6.5)							1 (2.7)	2 (1.3)	1 (2.0)	1 (0.9)	2 (2.2)	3 (1.5)
2 학 년 1학기부터			4 (6.6)					1 (2.7)	5 (3.3)		3 (2.7)	2 (2.2)	5 (2.5)
2 학 년 2학기부터	2 (6.5)	2 (7.7)	1 (1.6)	2 (28.6)			5 (26.3)	2 (5.4)	12 (7.9)	2 (4.0)	7 (6.2)	7 (7.9)	14 (6.9)
3 학 년 1학기부터	5 (16.1)	7 (26.9)	13 (21.3)			3 (17.6)	2 (10.5)	6 (16.2)	33 (21.7)	3 (6.0)	20 (17.7)	16 (18.0)	36 (17.8)
3 학 년 2학기부터	8 (25.8)	9 (34.6)	24 (39.3)	3 (42.9)	3 (75.0)	5 (29.4)	9 (47.4)	20 (54.1)	75 (49.3)	6 (12.0)	48 (42.5)	33 (37.1)	81 (40.1)
4 학 년 1학기부터	3 (9.7)	4 (15.4)	12 (19.7)	2 (28.6)		6 (35.3)		4 (10.8)	13 (8.6)	18 (36.0)	20 (17.7)	11 (12.4)	31 (15.3)
4 학 년 2학기부터	6 (19.4)	3 (11.5)	5 (8.2)			3 (17.6)	1 (5.3)	2 (5.4)	3 (2.0)	17 (34.0)	10 (8.8)	10 (11.2)	20 (9.9)
무 응 답	1 (3.2)								1 (0.7)			1 (1.1)	1 (0.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4)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상황은 아래의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의 47.0%가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학생이 32.2%, '구체적으로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는 학생이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

단과대학, 성별로는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학년(46.1%)과 4학년(50.0%)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학년은 15.1%에 그친 반면, 4학년의 경우에는 34%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취업을 목전에 둔 4학년이 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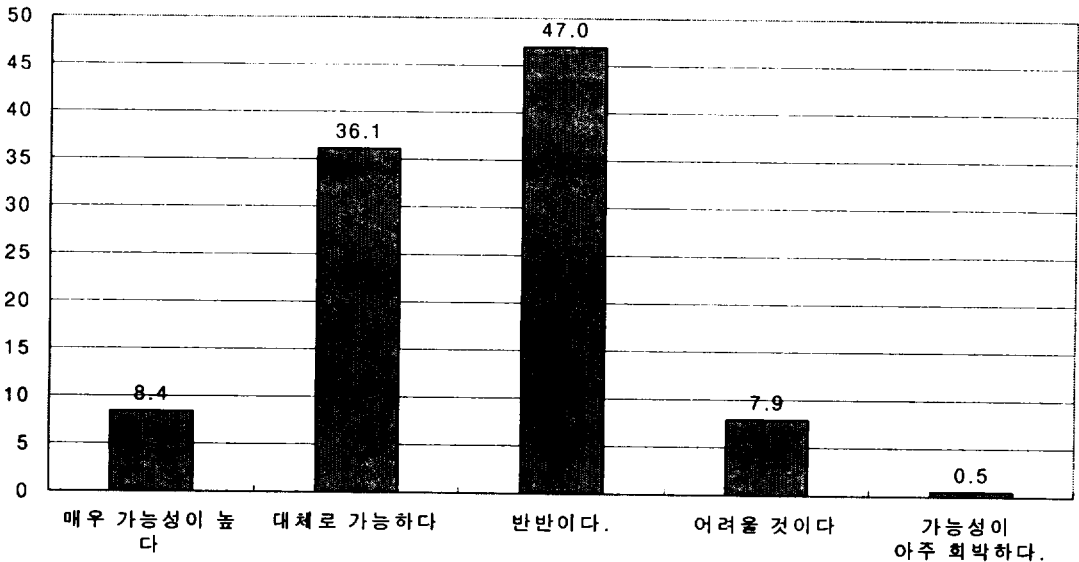
<표 3-4>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구 체 적 으 로 하 고 있 다	9 (29.0)	4 (15.4)	12 (19.7)	1 (14.3)		3 (17.6)	4 (21.1)	7 (18.9)	23 (15.1)	17 (34.0)	23 (20.4)	17 (19.1)	40 (19.8)
정 보 를 수 집 중 이 다	12 (38.7)	12 (46.2)	35 (57.4)	4 (57.1)	2 (50.0)	7 (41.2)	9 (47.4)	14 (37.8)	70 (46.1)	25 (50.0)	53 (46.9)	42 (47.2)	95 (47.0)
관 심 만 가 지 고 있 다	10 (32.3)	10 (38.5)	14 (23.0)	2 (28.6)	2 (50.0)	7 (41.2)	6 (31.6)	14 (37.8)	57 (37.5)	8 (16.0)	35 (31.0)	30 (33.7)	65 (32.2)
하 고 있 지 않 다								2 (5.4)	2 (1.3)		2 (1.8)		2 (1.0)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5) 졸업 후 진로선택 가능성

졸업 후 진로선택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5]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47.0%의 학생이 '반반'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6.1%,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은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졸업 후 진로선택 가능성

단과대학별로는 <표 3-5>에 나타난 것 처럼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해양대의 경우, 47.1%의 학생이 진로선택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범대의 경우에는 진로선택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7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과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의 경우 42.1%인 반면에, 4학년의 경우에는 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38.2%인 반면에, 남학생은 4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4학년이 되면서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들이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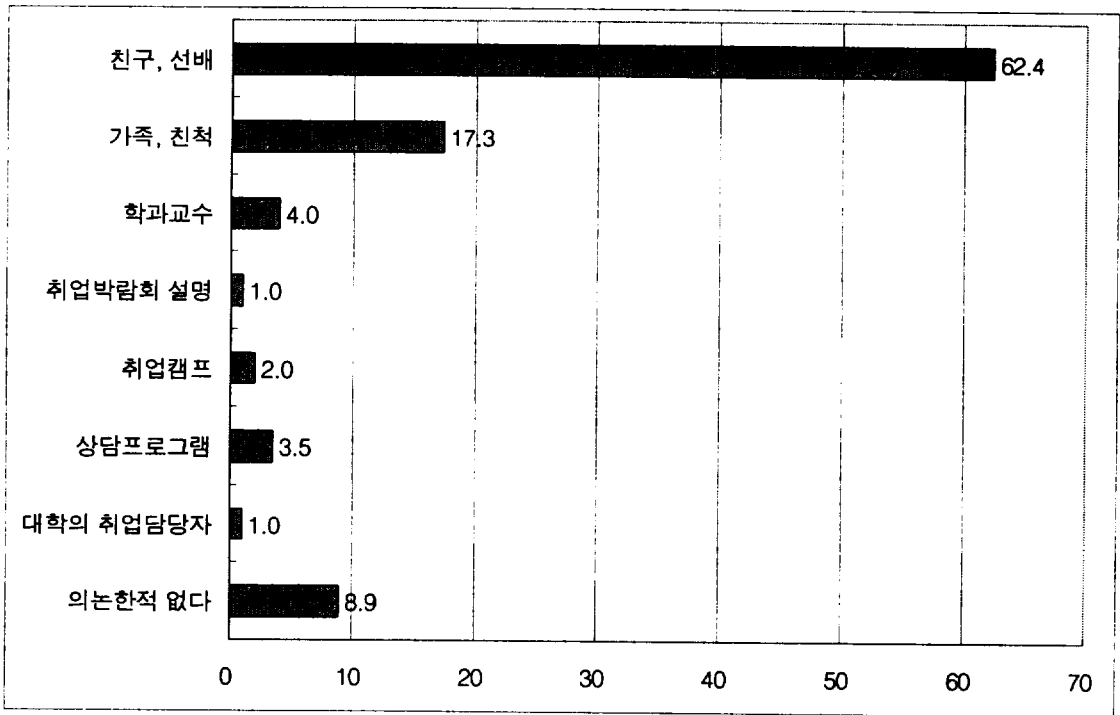
<표 3-5> 졸업 후 진로선택 가능성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매우 가능성이 높 다	4 (12.9)	3 (11.5)	4 (6.6)	1 (14.3)		1 (5.9)	2 (10.5)	2 (5.4)	14 (9.2)	3 (6.0)	10 (8.8)	7 (7.9)	17 (8.4)
대 체 로 가 능 하 다	9 (29.0)	8 (30.8)	21 (34.4)	5 (71.4)	1 (25.0)	8 (47.1)	7 (36.8)	14 (37.8)	50 (32.9)	23 (46.0)	46 (40.7)	27 (30.3)	73 (36.1)
반 반 이 다	17 (54.8)	15 (57.7)	31 (50.8)	1 (14.3)	3 (75.0)	3 (17.6)	9 (47.4)	16 (43.2)	75 (49.3)	20 (40.0)	48 (42.5)	47 (52.8)	95 (47.0)
어려울 것이다	1 (3.2)		5 (8.2)			4 (23.5)	1 (5.3)	5 (13.5)	12 (7.9)	4 (8.0)	8 (7.1)	8 (9.0)	16 (7.9)
가능성이 아주 희 박 하 다						1 (5.9)			1 (0.7)		1 (0.9)		1 (0.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6) 진로상담 대상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대상은 아래의 [그림 3-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2.4%의 학생들이 '친구나 선배'와 진로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 친척'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학생이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진로상담 대상

단과대학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학년, 성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년, 성별 모두 60%가 넘는 학생들이 '친구와 선배'를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20.4%의 학생들이 진로상담 대상으로 '가족과 친척'을 들고 있으나, 4학년의 경우에는 4%의 학생들만이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12.4%의 학생들이 진로상담을 하는 대상으로 '가족과 친척'을 들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2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진로상담 대상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친 구, 선 배	17 (54.8)	13 (50.0)	41 (67.2)	3 (42.9)	3 (75.0)	12 (70.6)	10 (52.6)	27 (73.0)	94 (61.8)	32 (64.0)	71 (62.8)	55 (61.8)	126 (62.4)
가 족, 친 척	6 (19.4)	4 (15.4)	12 (19.7)	2 (28.6)	1 (25.0)	1 (5.9)	6 (31.6)	3 (8.1)	31 (20.4)	4 (8.0)	14 (12.4)	21 (23.6)	35 (17.3)
학 과 교 수		3 (11.5)	1 (1.6)					4 (10.8)	7 (4.6)	1 (2.0)	6 (5.3)	2 (2.2)	8 (4.0)
취업박람회 명	1 (3.2)		1 (1.6)						2 (1.3)		1 (0.9)	1 (1.1)	2 (1.0)
취업 캠프	1 (3.2)	1 (3.8)	1 (1.6)	1 (14.3)					3 (2.0)	1 (2.0)	2 (1.8)	2 (2.2)	4 (2.0)
상 담 프 로 그 램	1 (3.2)	2 (7.7)	2 (3.3)			1 (5.9)		1 (2.7)	4 (2.6)	3 (6.0)	4 (3.5)	3 (3.4)	7 (3.5)
대 학 의 취업담당자						1 (5.9)	1 (5.3)		1 (0.7)	1 (2.0)	2 (1.8)		2 (1.0)
의 논 한 적 없 다	5 (16.1)	3 (11.5)	3 (4.9)	1 (14.3)		2 (11.8)	2 (10.5)	2 (5.4)	10 (6.6)	8 (16.0)	13 (11.5)	5 (5.6)	18 (8.9)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7) 자격증 취득여부

자격증 취득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7]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8.3%였으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자격증 취득여부

단과대학, 학년, 성별로 자격증 취득여부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범대의 경우에는 다른 학과와 달리 졸업과 함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므로 100%의 학생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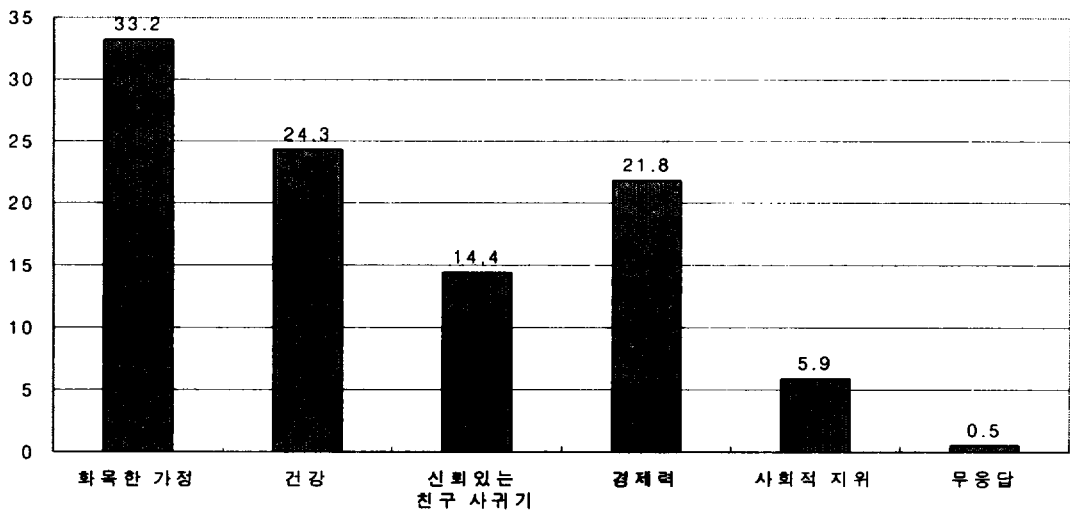
<표 3-7> 자격증 취득여부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있 다	21 (67.7)	18 (69.2)	43 (70.5)	7 (100)	2 (50.0)	11 (64.7)	10 (52.6)	26 (70.3)	102 (67.1)	36 (72.0)	80 (70.8)	58 (65.2)	138 (68.3)
없 다	10 (32.3)	8 (30.8)	18 (29.5)		2 (50.0)	6 (35.3)	9 (47.4)	11 (29.7)	50 (32.9)	14 (28.0)	33 (29.2)	31 (34.8)	64 (31.7)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8) 인생에서 소중한 것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3.2%의 학생들이 '화목한 가정'이 소중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4.3%의 학생들이 '건강', 21.8%의 학생들이 '경제력'이 소중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인생에서 소중한 것

단과대학, 학년, 성별로는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6.7%의 학생들만이 '친구 사귀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20.4%의 학생들이 '친구 사귀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인생에서 소중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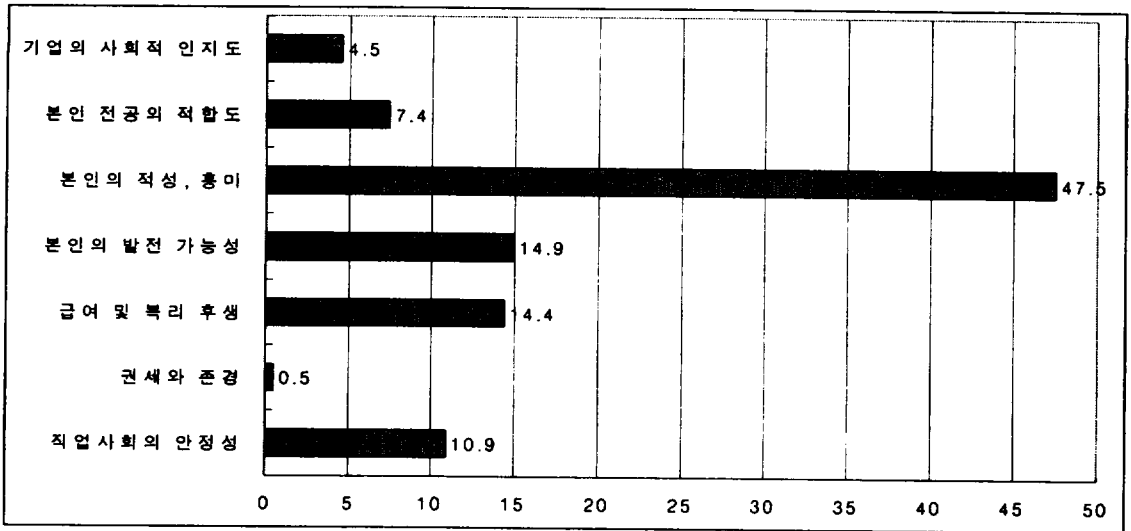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화목한 가정	12 (38.7)	9 (34.6)	20 (32.8)	4 (57.1)	3 (75.0)	7 (41.2)	4 (21.1)	8 (21.6)	47 (30.9)	20 (40.0)	34 (30.1)	33 (37.1)	67 (33.2)
건강	10 (32.3)	8 (30.8)	15 (24.6)	1 (14.3)		1 (5.9)	6 (31.6)	9 (24.3)	38 (25.0)	11 (22.0)	20 (17.7)	29 (32.6)	49 (24.3)
신뢰 있는 친구 사귀기	4 (12.9)	4 (15.4)	5 (8.2)	1 (14.3)		5 (29.4)	2 (10.5)	8 (21.6)	21 (13.8)	8 (16.0)	23 (20.4)	6 (6.7)	29 (14.4)
경제력	4 (12.9)	4 (15.4)	15 (24.6)		1 (75.0)	4 (23.5)	5 (26.3)	10 (27.0)	36 (23.7)	8 (16.0)	27 (23.9)	17 (19.1)	44 (21.8)
사회적 지위	1 (3.2)	1 (3.8)	6 (9.8)				2 (10.5)	2 (5.4)	9 (5.9)	3 (6.0)	8 (7.1)	4 (4.5)	12 (5.9)
무응답				1 (14.3)					1 (0.7)		1 (0.9)		1 (0.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2. 취업선택

1) 취업할 기업체 선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취업할 기업체를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아래의 [그림 3-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인의 발전 가능성'이 14.9%, '급여 및 복리후생'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취업할 기업체 선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단과대학, 학년, 성별로 살펴보면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문대(22.6%)와 사범대(28.6%)의 경우, '직업사회의 안정성'이 타 대학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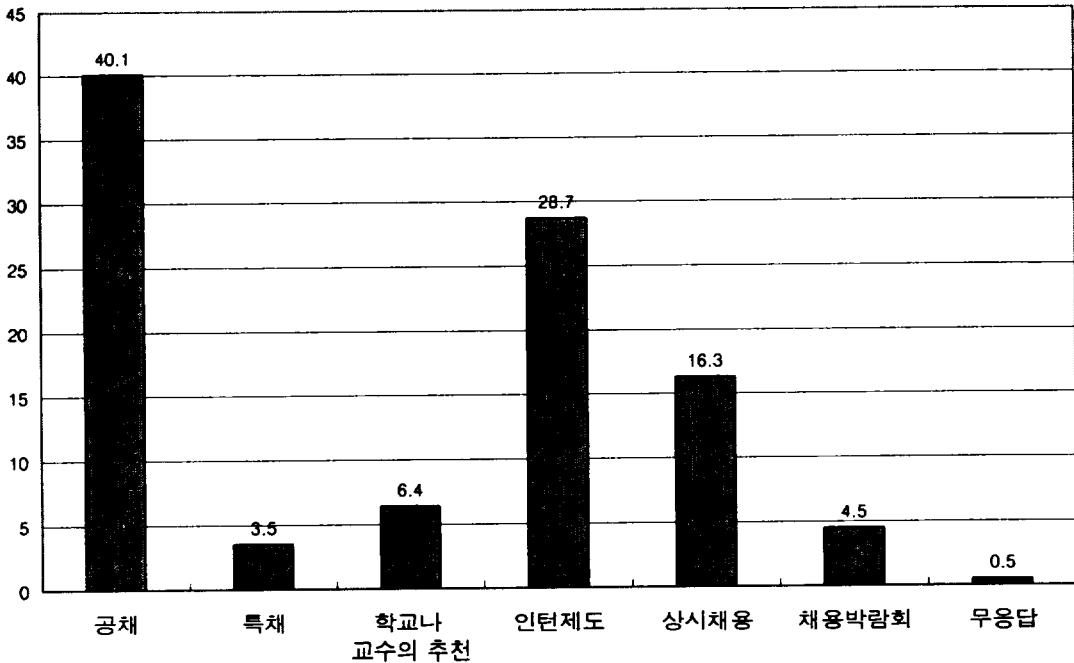
<표 3-9> 취업할 기업체 선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기업의 사회적 인지도	1 (3.2)	2 (7.7)	3 (4.9)			2 (11.8)		1 (2.7)	3 (2.0)	6 (12.0)	7 (6.2)	2 (2.2)	9 (4.5)
본인 전공의 적합도	2 (6.5)	1 (3.8)	3 (4.9)			3 (17.6)		6 (16.2)	14 (9.2)	1 (2.0)	11 (9.7)	4 (4.5)	15 (7.4)
본인의 적성, 흥미	12 (38.7)	11 (42.3)	33 (54.1)	2 (28.6)	3 (75.0)	6 (35.3)	12 (63.2)	17 (45.9)	73 (48.0)	23 (46.0)	49 (43.4)	47 (52.8)	96 (47.5)
본인의 발전 가능성	4 (12.9)	2 (7.7)	9 (14.8)	2 (28.6)		3 (17.6)	2 (10.5)	8 (21.6)	21 (13.8)	9 (18.0)	18 (15.9)	12 (13.5)	30 (14.9)
급여 및 복리 후생	4 (12.9)	6 (23.1)	10 (16.4)	1 (14.3)	1 (25.0)	2 (11.8)	3 (15.8)	2 (5.4)	24 (15.8)	5 (10.0)	15 (13.3)	14 (15.7)	29 (14.4)
권세와 존경	1 (3.2)									1 (2.0)	1 (0.9)		1 (0.5)
직업사회의 안정성	7 (22.6)	4 (15.4)	3 (4.9)	2 (28.6)		1 (5.9)	2 (10.5)	3 (8.1)	17 (11.2)	5 (10.0)	12 (10.6)	10 (11.2)	22 (10.9)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2) 이상적인 채용방법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채용방법은 아래의 [그림 3-1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40.1%가 '공채'가 이상적인 채용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인턴제도'(28.7%), '상시채용'(16.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이상적인 채용방법

<표3-10>을 보면 사범대와 공과대를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은 '공채'를 가장 이상적인 채용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범대(71.4%)와 공과대(37.8%)의 경우에는 '인턴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채용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성별로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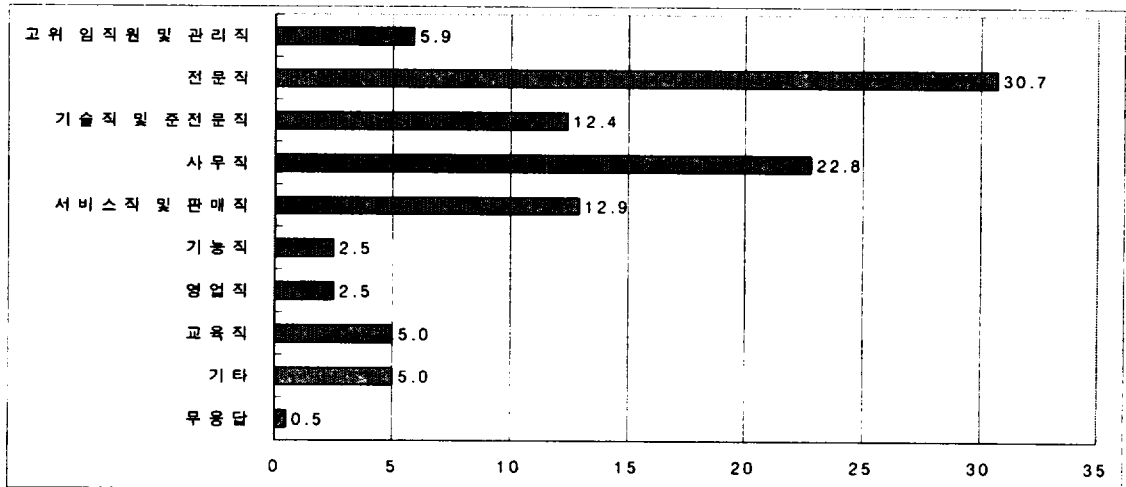
<표 3-10> 이상적인 채용방법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공 채	15 (48.4)	13 (50.0)	24 (39.3)	2 (28.6)	3 (75.0)	7 (41.2)	10 (52.6)	7 (18.9)	58 (38.2)	23 (46.0)	44 (38.9)	37 (41.6)	81 (40.1)
특 채		1 (3.8)	2 (3.3)			3 (17.6)		1 (2.7)	6 (3.9)	1 (2.0)	5 (4.4)	2 (2.2)	7 (3.5)
학교나 교수의 추천		1 (3.8)	4 (6.6)				1 (5.3)	7 (18.9)	12 (7.9)	1 (2.0)	11 (9.7)	2 (2.2)	13 (6.4)
인턴 제도	7 (22.6)	7 (26.9)	18 (29.5)	5 (71.4)		2 (11.8)	5 (26.3)	14 (37.8)	46 (30.3)	12 (24.0)	29 (25.7)	29 (32.6)	58 (28.7)
상시 채용	7 (22.6)	3 (11.5)	10 (16.4)		1 (25.0)	5 (29.4)	2 (10.5)	5 (13.5)	21 (13.8)	12 (24.0)	19 (16.8)	14 (15.7)	33 (16.3)
채용박람회	1 (3.2)	1 (3.8)	3 (4.9)				1 (5.3)	3 (8.1)	8 (5.3)	1 (2.0)	5 (4.4)	4 (4.5)	9 (4.5)
무 응 답	1 (3.2)								1 (0.7)			1 (1.1)	1 (0.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3) 취업하고 싶은 직종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직종은 [그림 3-1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직'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3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무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22.8%, '서비스직 및 판매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2.9%, '기술직 및 준전문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취업하고 싶은 직종

단과대학별로는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이 다르므로 취업하고 싶은 직종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해양대의 경우, '전문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1.8%로 타 대학에 비하여 그 수가 적지만 '기술직 및 준전문직'을 희망하는 숫자는 29.4%로 타 대학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과대의 경우에 '기술직 및 준전문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하여 훨씬 많은 37.8%로 나타났으나, '사무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타 대학보다 훨씬 적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별로 전공에 따라 취업하고 싶은 직종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년별로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성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학생의 '기술직 및 준전문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9.5%인 것에 비하여 여학생은 3.4%만 '기술직 및 준전문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성별로 희망 직종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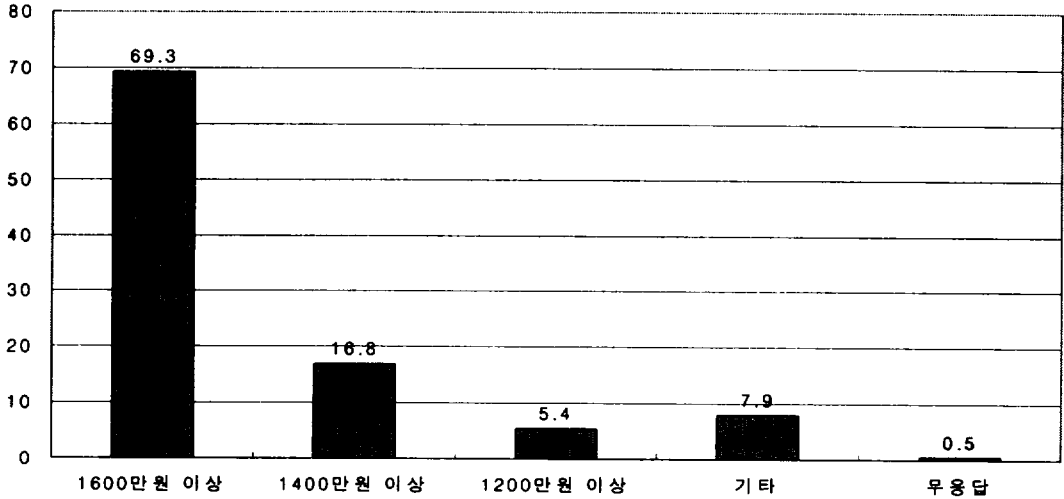
<표 3-11> 취업하고 싶은 직종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2 (6.5)	2 (7.7)	5 (8.2)			1 (5.9)		2 (5.4)	9 (5.9)	3 (6.0)	11 (9.7)	1 (1.1)	12 (5.9)
전 문 직	11 (35.5)	8 (30.8)	14 (23.0)	4 (57.1)	2 (50.0)	2 (11.8)	7 (36.8)	14 (37.8)	50 (32.9)	12 (24.0)	33 (29.2)	29 (32.6)	62 (30.7)
기술직 및 준 전문 직		4 (15.4)	2 (3.3)			5 (29.4)		14 (37.8)	16 (10.5)	9 (18.0)	22 (19.5)	3 (3.4)	25 (12.4)
사 무 직	8 (25.8)	8 (30.8)	21 (34.4)	1 (14.3)	1 (25.0)	3 (17.6)	3 (15.8)	1 (2.7)	33 (21.7)	13 (26.0)	24 (21.2)	22 (24.7)	46 (22.8)
서 비 스 직 및 판매직	2 (6.5)	3 (11.5)	12 (19.7)		1 (25.0)	2 (11.8)	5 (26.3)	1 (2.7)	21 (13.8)	5 (10.0)	13 (11.5)	13 (14.6)	26 (12.9)
기 능 직						3 (17.6)		2 (5.4)	4 (2.6)	1 (2.0)	4 (3.5)	1 (1.1)	5 (2.5)
영 업 직	1 (3.2)		3 (4.9)				1 (5.3)		3 (2.0)	2 (4.0)	2 (1.8)	3 (3.4)	5 (2.5)
교 육 직	4 (12.9)		3 (4.9)	2 (28.6)			1 (5.3)		7 (4.6)	3 (6.0)	1 (0.9)	9 (10.1)	10 (5.0)
기 타	3 (9.7)	1 (3.8)	1 (1.6)			1 (5.9)	2 (10.5)		8 (5.3)	2 (4.0)	3 (2.7)	7 (7.9)	10 (5.0)
무 응 답								1 (2.7)	1 (0.7)			1 (1.1)	1 (0.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4) 희망하는 최저 보수액

학생들이 희망하는 최저 보수는 아래의 [그림 3-1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 1600만원이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69.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6.8%의 학생들이 '연봉 1400만원이상'을 희망하였으며, '기타'가 7.9%로 나타났다.



[그림 3-12] 희망하는 최저 보수액

<표 3-12> 희망하는 최저 보수액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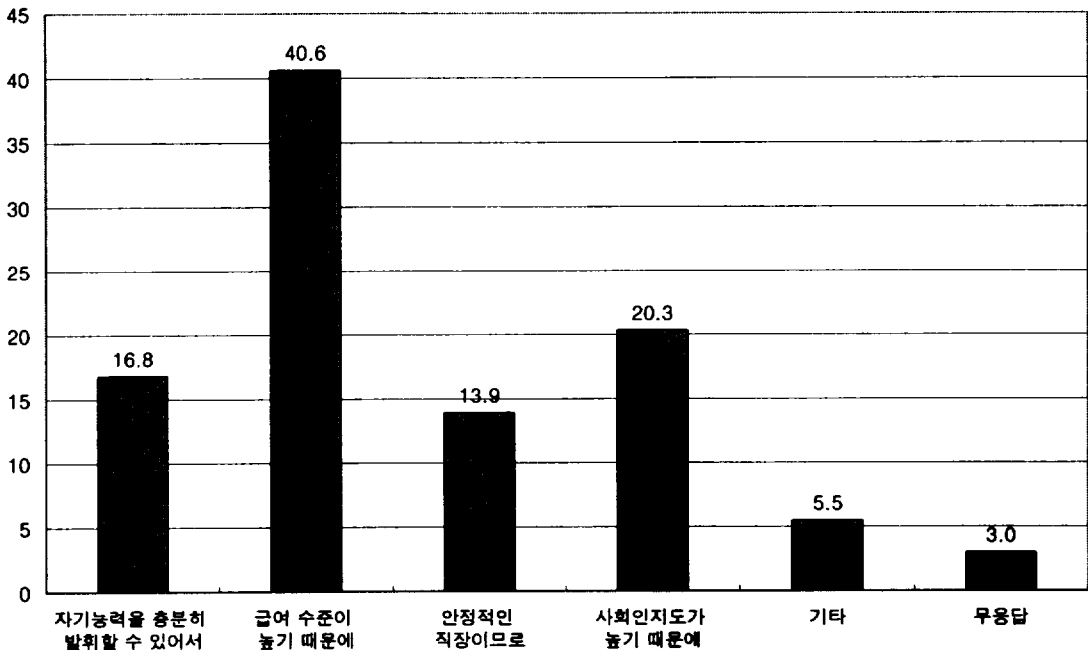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연봉 1600만원 이상	19 (61.3)	15 (57.7)	46 (75.4)	6 (85.7)	4 (100)	9 (52.9)	13 (68.4)	28 (75.7)	111 (73.0)	29 (58.0)	81 (71.7)	59 (66.3)	140 (69.3)
연봉 1400만원 이상	6 (19.4)	8 (30.8)	7 (11.5)			5 (29.4)	3 (15.8)	5 (13.5)	23 (15.1)	11 (22.0)	17 (15.0)	17 (19.1)	34 (16.8)
연봉 1200만원 이상	1 (3.2)	2 (7.7)	2 (3.3)			1 (5.9)	1 (5.3)	4 (10.8)	9 (5.9)	2 (4.0)	5 (4.4)	6 (6.7)	11 (5.4)
기 타	4 (12.9)	1 (3.8)	6 (9.8)	1 (14.3)		2 (11.8)	2 (10.5)		9 (5.9)	7 (14.0)	9 (8.0)	7 (7.9)	16 (7.9)
무 응 답	1 (3.2)									1 (2.0)	1 (0.9)		1 (0.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표 3-12>를 보면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법정대와 해양대의 경우, '연봉 1400만원이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각각 30.8%와 29.4%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성별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최저 보수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학년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600만원이상'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보면 3학년의 경우 73.0%인데 반하여 4학년의 경우에는 58.0%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학생들이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아래의 [그림 3-1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6%의 학생들이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학생이 20.3%,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단과대학, 학년, 성별로는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슷한 분포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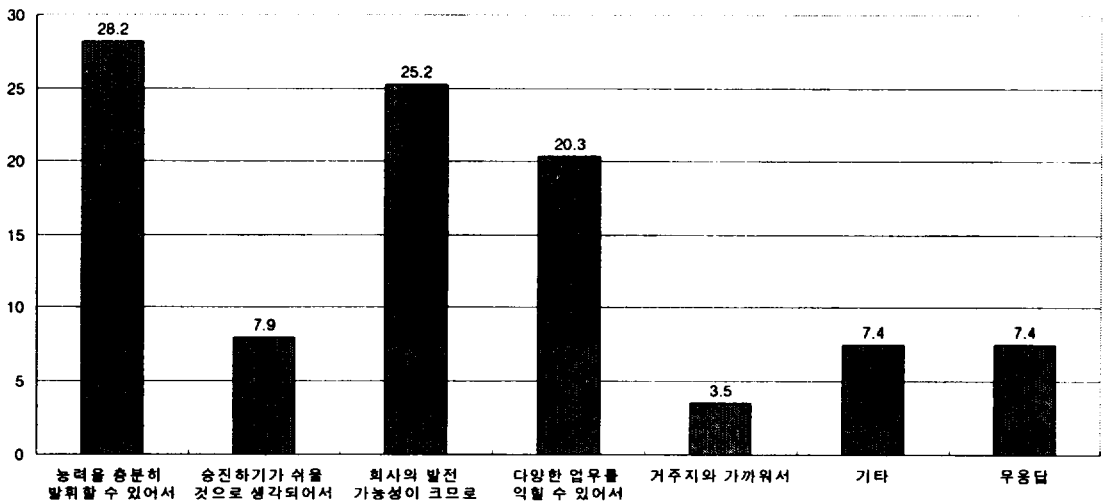
<표 3-13>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	7 (22.6)	3 (11.5)	9 (14.8)	2 (28.6)	1 (25.0)	3 (17.6)	3 (15.8)	6 (16.2)	27 (17.8)	7 (14.0)	19 (16.8)	15 (16.9)	34 (16.8)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에	10 (32.3)	11 (42.3)	27 (44.3)	2 (28.6)	2 (50.0)	5 (29.4)	9 (47.4)	16 (43.2)	59 (38.8)	23 (46.0)	46 (40.7)	36 (40.4)	82 (40.6)
안정적인 직장이므로	5 (16.1)	4 (15.4)	9 (14.8)	1 (14.3)	1 (25.0)	2 (11.8)	1 (5.3)	5 (13.5)	24 (15.8)	4 (8.0)	12 (10.6)	16 (18.0)	28 (13.9)
사회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7 (22.6)	5 (19.2)	13 (21.3)			4 (23.5)	3 (15.8)	9 (24.3)	29 (19.1)	12 (24.0)	26 (23.0)	15 (16.9)	41 (20.3)
기 타	1 (3.2)	2 (7.7)	1 (1.6)	1 (14.3)		3 (17.6)	3 (15.8)		7 (4.6)	4 (8.0)	7 (6.2)	4 (4.5)	11 (5.4)
무 응 답	1 (3.2)	1 (3.8)	2 (3.3)	1 (14.3)				1 (2.7)	6 (3.9)		3 (2.7)	3 (3.4)	6 (3.0)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6)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학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아래의 [그림 3-1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2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25.2%, '다양한 업무를 익힐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표 3-14>을 살펴보면, 각 단과대학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단과대학별로 일관된 흐름 없이 제각각의 분포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학년별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3학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가 '다양한 업무를 익힐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23.0%였으나, 4학년의 경우에는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는 비슷한 분포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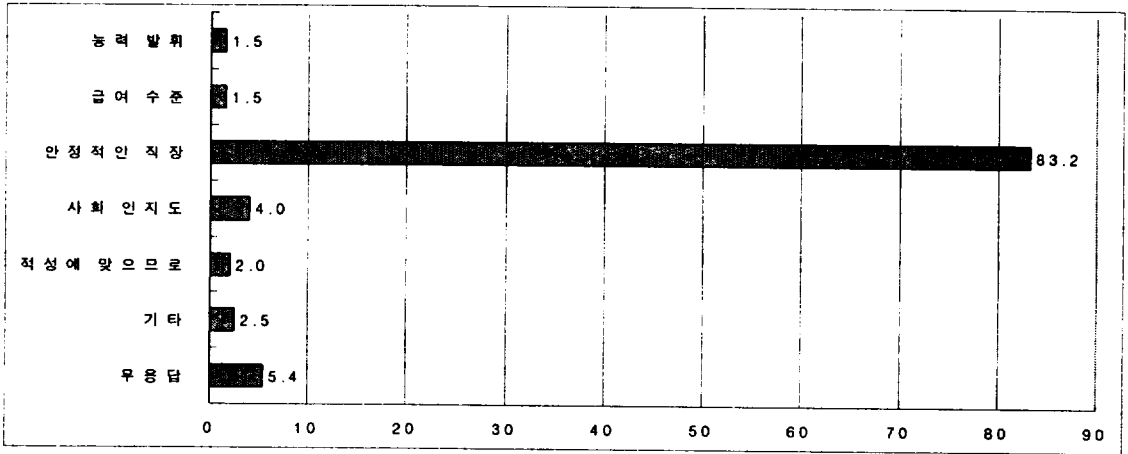
<표 3-14>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능력 충분 발휘할 수 있 어 서	12 (38.7)	6 (23.1)	16 (26.2)		1 (25.0)	3 (17.6)	9 (47.4)	10 (27.0)	40 (26.3)	17 (34.0)	32 (28.3)	25 (28.1)	57 (28.2)
승진하기 가 쉬울 것으로 생각 되어 서	2 (6.5)	3 (11.5)	3 (4.9)	1 (14.3)		1 (5.9)	3 (15.8)	3 (8.1)	12 (7.9)	4 (8.0)	11 (9.7)	5 (5.6)	16 (7.9)
회사의 발전 가능성 이크 므로	7 (22.6)	8 (30.8)	18 (29.5)	1 (14.3)		4 (23.5)	3 (15.8)	10 (27.0)	37 (24.3)	14 (28.0)	28 (24.8)	23 (25.8)	51 (25.2)
다 양 한 업 무 를 익 힐 수 있 어 서	7 (22.6)	2 (7.7)	13 (21.3)	2 (28.6)		5 (29.4)	1 (5.3)	11 (29.7)	35 (23.0)	6 (12.0)	25 (22.1)	16 (18.0)	41 (20.3)
거 주 지 와 가 까 워 서		2 (7.7)	2 (3.3)		1 (25.0)		1 (5.3)	1 (2.7)	5 (3.3)	2 (4.0)	3 (2.7)	4 (4.5)	7 (3.5)
기 타	1 (3.2)	3 (11.5)	3 (4.9)	2 (28.6)	1 (25.0)	2 (11.8)	1 (5.3)	2 (5.4)	10 (6.6)	5 (10.0)	7 (6.2)	8 (9.0)	15 (7.4)
무 응 답	2 (6.5)	2 (7.7)	6 (9.8)	1 (14.3)	1 (25.0)	2 (11.8)	1 (5.3)		13 (8.6)	2 (4.0)	7 (6.2)	8 (9.0)	15 (7.4)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7)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아래의 [그림 3-1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8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

단과대학, 학년, 성별로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슷한 분포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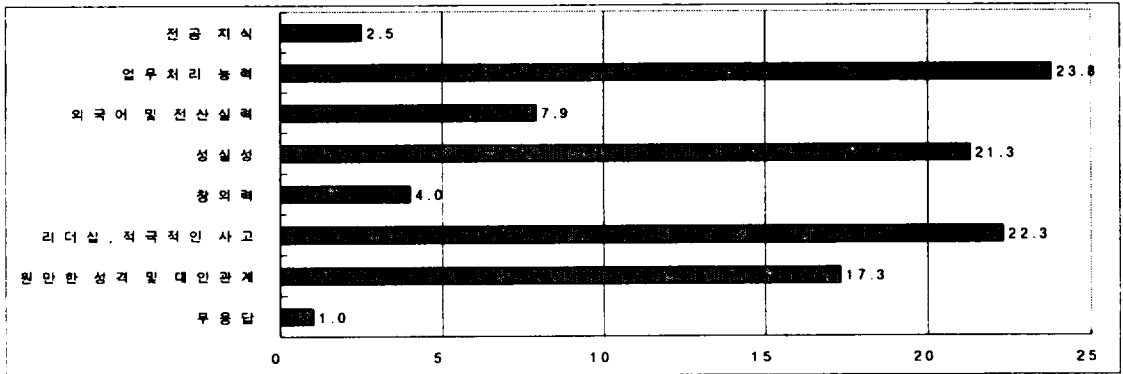
<표 3-15>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능력 발휘	1 (3.2)							2 (5.4)	2 (1.3)	1 (2.0)	3 (2.7)		3 (1.5)
급여 수준			1 (1.6)		1 (25.0)			1 (2.7)	3 (2.0)		2 (1.8)	1 (1.1)	3 (1.5)
안정적인 직장	29 (93.5)	21 (80.8)	50 (82.0)	5 (71.4)	2 (50.0)	13 (76.5)	17 (89.5)	31 (83.8)	127 (83.6)	41 (82.0)	90 (79.6)	78 (87.6)	168 (83.2)
사회 인지도	1 (3.2)	2 (7.7)	3 (4.9)			1 (5.9)		1 (2.7)	5 (3.3)	3 (6.0)	7 (6.2)	1 (1.1)	8 (4.0)
적성에 맞으므로		2 (7.7)	1 (1.6)	1 (14.3)					4 (2.6)		1 (0.9)	3 (3.4)	4 (2.0)
기타			3 (4.9)			1 (5.9)	1 (5.3)		3 (2.0)	2 (4.0)	3 (2.7)	2 (2.2)	5 (2.5)
무응답		1 (3.8)	3 (4.9)	1 (14.3)	1 (25.0)	2 (11.8)	1 (5.3)	2 (5.4)	8 (5.3)	3 (6.0)	7 (6.2)	4 (4.5)	11 (5.4)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8)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

학생들이 어떤 것들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지가 [그림 3-1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처리'(23.8%), '리더십과 적극적인 사고'(22.3%), '성실성'(21.3%)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원만한 성격 및 대인관계'라고 응답한 학생이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 대학생들의 경우,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는 '업무처리 능력', '외국어 및 전산실력', '전공지식' 등의 능력 보다는 '리더십과 적극적인 사고', '성실성', '원만한 성격 및 대인관계' 등 성격적인 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

<표 3-16>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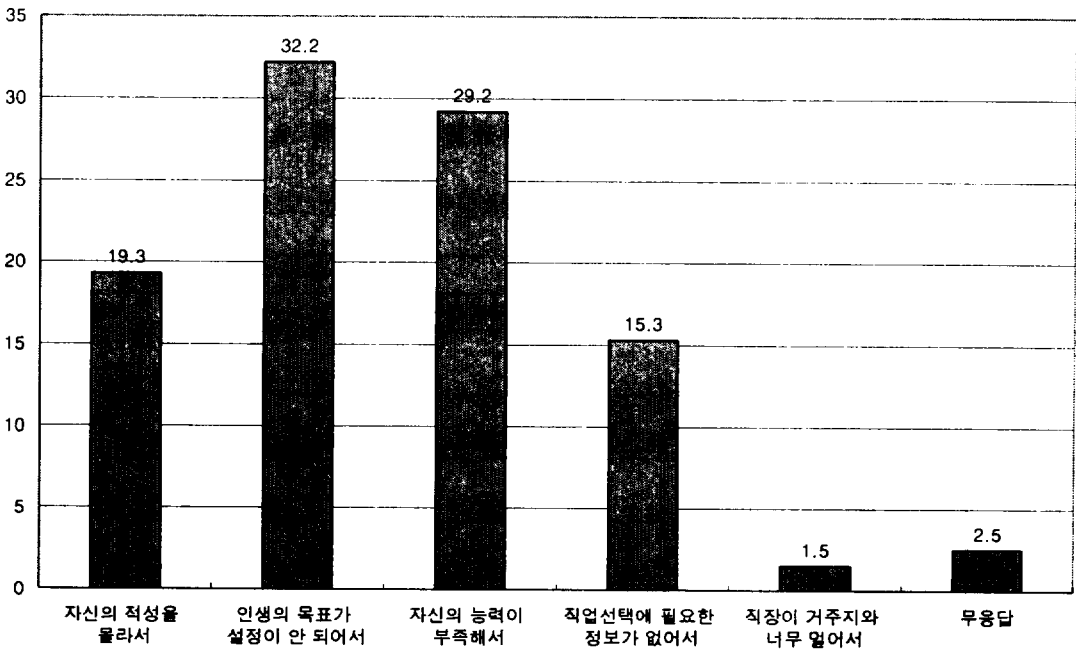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전공 지식	1 (3.2)		2 (3.3)			1 (5.9)		1 (2.7)	4 (2.6)	1 (2.0)	3 (2.7)	2 (2.2)	5 (2.5)
업무처리 능력	7 (22.6)	7 (26.9)	16 (26.2)	1 (14.3)	1 (25.0)	3 (17.6)	5 (26.3)	8 (21.6)	40 (26.3)	8 (16.0)	27 (23.9)	21 (23.6)	48 (23.8)
외국어 및 전산실력	2 (6.5)	1 (3.8)	7 (11.5)				3 (15.8)	3 (8.1)	12 (7.9)	4 (8.0)	8 (7.1)	8 (9.0)	16 (7.9)
성실성	7 (22.6)	6 (23.1)	11 (18.0)	2 (28.6)	2 (50.0)	4 (23.5)	3 (15.8)	8 (21.6)	31 (20.4)	12 (24.0)	28 (24.8)	15 (16.9)	43 (21.3)
창의력	1 (3.2)	2 (7.7)	1 (1.6)			1 (5.9)	1 (5.3)	2 (5.4)	5 (3.3)	3 (6.0)	2 (1.8)	6 (6.7)	8 (4.0)
리더십, 적극 적인 사고	10 (32.3)	3 (11.5)	13 (21.3)	3 (42.9)		4 (23.5)	4 (21.1)	8 (21.6)	33 (21.7)	12 (24.0)	26 (23.0)	19 (21.3)	45 (22.3)
원만한 성격 및 대인관계	3 (9.7)	7 (26.9)	10 (16.4)	1 (14.3)	1 (25.0)	3 (17.6)	3 (15.8)	7 (18.9)	26 (17.1)	9 (18.0)	17 (15.0)	18 (20.2)	35 (17.3)
무응답			1 (1.6)			1 (5.9)			1 (0.7)	1 (2.0)	2 (1.8)		2 (1.0)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단과대학, 학년, 성별로는 <표 3-16>처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3학년의 경우, 26.3%의 학생들이 '업무처리 능력'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반면, 4학년의 경우에는 16.0%의 학생들이 '업무처리 능력'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래의 [그림 3-1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안 되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9.2%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자신의 적성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9.3%,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표 3-17>에 나타난 것 처럼 단과대학과 성별로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으나, 학년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자신의 적성을 몰라서'가 22.4%,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안 되어서'가 34.9%인데 반하여 4

학년의 경우, '자신의 적성을 몰라서'가 10.0%,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안 되어서'가 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4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3학년이 25.0%인데 비하여 4학년은 4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4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실감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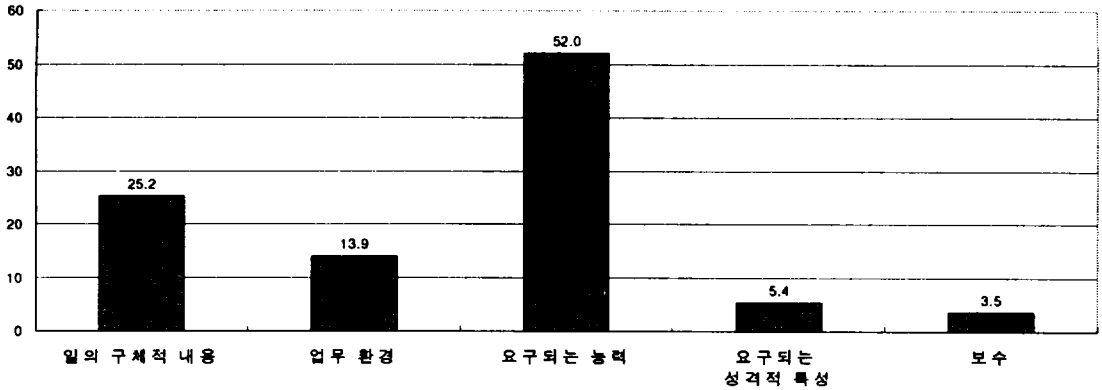
<표 3-17>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자신의 적성을 몰라 서	11 (35.5)	4 (15.4)	7 (11.5)	2 (28.6)	2 (50.0)	3 (17.6)	3 (15.8)	7 (18.9)	34 (22.4)	5 (10.0)	19 (16.8)	20 (22.5)	39 (19.3)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안 되어서	7 (22.6)	9 (34.6)	23 (37.7)		1 (25.0)	4 (23.5)	8 (42.1)	13 (35.1)	53 (34.9)	12 (24.0)	35 (31.0)	30 (33.7)	65 (32.2)
자신의 능력이 부족 해서	11 (35.5)	8 (30.8)	20 (32.8)	3 (42.9)		4 (23.5)	5 (26.3)	8 (21.6)	38 (25.0)	21 (42.0)	32 (28.3)	27 (30.3)	59 (29.2)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없 어 서	1 (3.2)	5 (19.2)	10 (16.4)	2 (28.6)	1 (25.0)	4 (23.5)	1 (5.3)	7 (18.9)	21 (13.8)	10 (20.0)	21 (18.6)	10 (11.2)	31 (15.3)
직장이 거주지와 너무 멀어서						2 (11.8)	1 (5.3)		2 (1.3)	1 (2.0)	2 (1.8)	1 (1.1)	3 (1.5)
무 응 답	1 (3.2)		1 (1.6)				1 (5.3)	2 (5.4)	4 (2.6)	1 (2.0)	4 (3.5)	1 (1.1)	5 (2.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10) 직업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

학생들이 직업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은 [그림 3-1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8]을 보면, 전체의 52.0%의 학생들이 직업에 '요구되는 능력'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25.2%, '업무환경'을 알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직업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

각 단과대학별로 직업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에는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와 자연대의 경우에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14.3%, 10.5%로 타 단과대학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취업할 직업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은 자신들이 할 구체적인 일 보다는 직업에 요구되는 능력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3-18> 직업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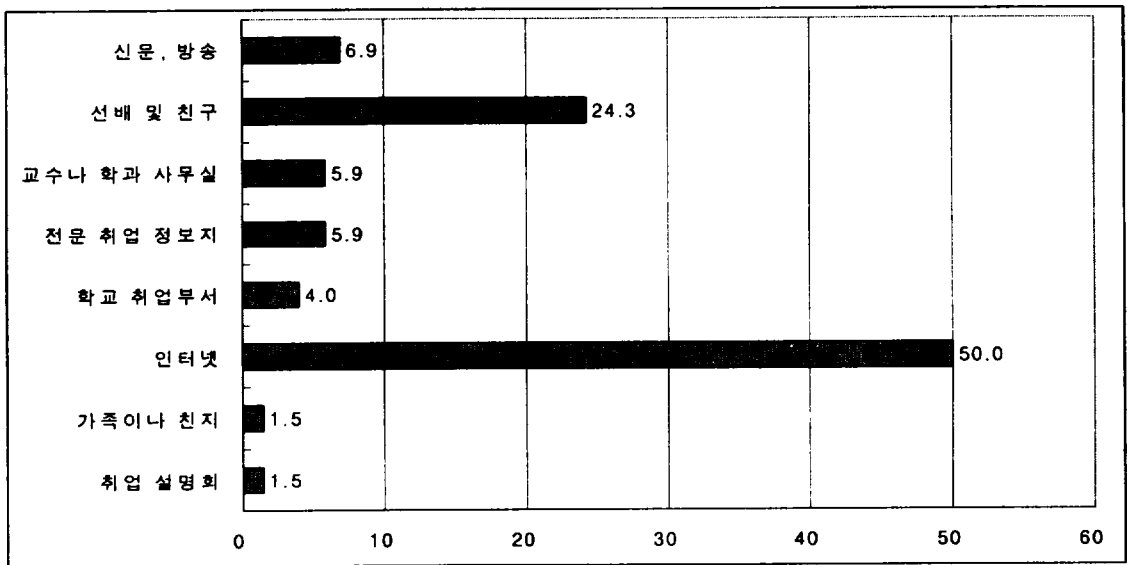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일의 구체적 내용	12 (38.7)	6 (23.1)	16 (26.2)	1 (14.3)	1 (25.0)	4 (23.5)	2 (10.5)	9 (24.3)	35 (23.0)	16 (32.0)	28 (24.8)	23 (25.8)	51 (25.2)
업무 환경	4 (12.9)	2 (7.7)	9 (14.8)		2 (50.0)	5 (29.4)	3 (15.8)	3 (8.1)	24 (15.8)	4 (8.0)	17 (15.0)	11 (12.4)	28 (13.9)
요구되는 능력	12 (38.7)	13 (50.0)	30 (49.2)	5 (71.4)	1 (25.0)	7 (41.2)	13 (68.4)	24 (64.9)	80 (52.6)	25 (50.0)	60 (53.1)	45 (50.6)	105 (52.0)
요구되는 성격적 특성	2 (6.5)	4 (15.4)	4 (6.6)					1 (2.7)	8 (5.3)	3 (6.0)	4 (3.5)	7 (7.9)	11 (5.4)
보수	1 (3.2)	1 (3.8)	2 (3.3)	1 (14.3)		1 (5.9)	1 (5.3)		5 (3.3)	2 (4.0)	4 (3.5)	3 (3.4)	7 (3.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3. 취업 관련 대학생활과 면화

1)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은 [그림 3-1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에 이르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배나 친구'로부터 취업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이 학년별로는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대학, 성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대학별로는 해양대와 공과대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를 '선배나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47.1%와 35.1%로 타 대학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선배나 친구'로부터 얻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2.7%인데 비하여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1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자의 경우에는 44.2%인데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에는 57.3%로 남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를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얻는데 비하여 여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신문, 방송	4 (12.9)	1 (3.8)	4 (6.6)					5 (13.5)	12 (7.9)	2 (4.0)	9 (8.0)	5 (5.6)	14 (6.9)
선배 및 친 구	5 (16.1)	5 (19.2)	14 (23.0)	1 (14.3)		8 (47.1)	3 (15.8)	13 (35.1)	36 (23.7)	13 (26.0)	37 (32.7)	12 (13.5)	49 (24.3)
교수나 학과 사 무 실		1 (3.8)	6 (9.8)			1 (5.9)	2 (10.5)	2 (5.4)	9 (5.9)	3 (6.0)	7 (6.2)	5 (5.6)	12 (5.9)
전문 취업 정 보 지	1 (3.2)	1 (3.8)	3 (4.9)		1 (25.0)		4 (21.1)	2 (5.4)	10 (6.6)	2 (4.0)	4 (3.5)	8 (9.0)	12 (5.9)
학 교 취 업 부 서	2 (6.5)		2 (3.3)			1 (5.9)	2 (10.5)	1 (2.7)	6 (3.9)	2 (4.0)	2 (1.8)	6 (6.7)	8 (4.0)
인 터 넷	18 (58.1)	16 (61.5)	31 (50.8)	6 (85.7)	3 (75.0)	6 (35.3)	8 (42.1)	13 (35.1)	74 (48.7)	27 (54.0)	50 (44.2)	51 (57.3)	101 (50.0)
가 족 이 나 친 지		2 (7.7)				1 (5.9)			3 (2.0)		2 (1.8)	1 (1.1)	3 (1.5)
취업 설명회	1 (3.2)		1 (1.6)					1 (2.7)	2 (1.3)	1 (2.0)	2 (1.8)	1 (1.1)	3 (1.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2)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은 [그림 3-2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92.1%의 학생들이 '네이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을 조사한 결과, 단과대학별로나 학년, 성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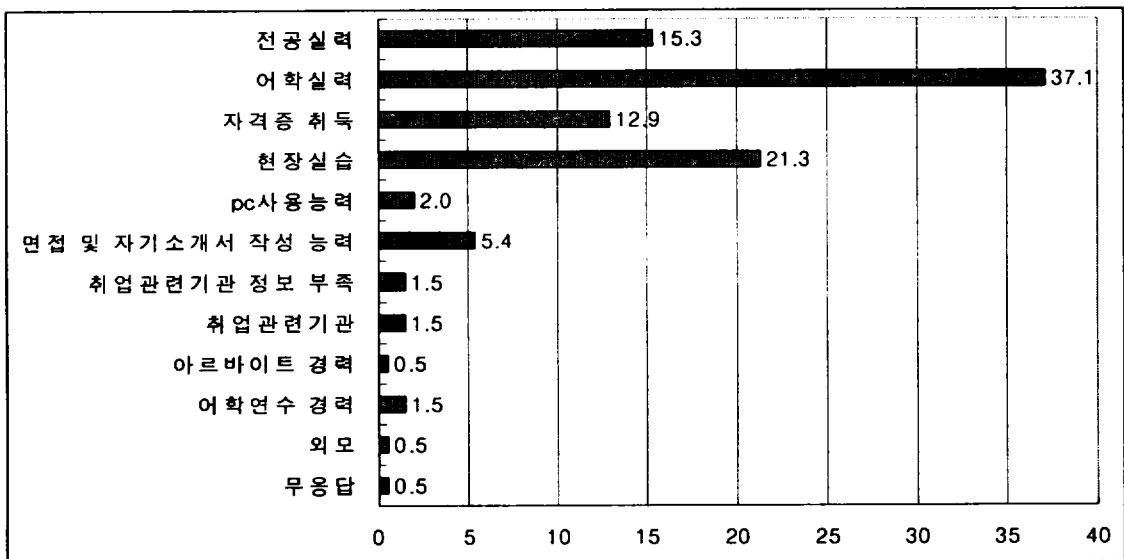
<표 3-20>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2	남	여	
네 이 버	31 (100)	24 (92.3)	55 (90.2)	7 (100)	3 (75.0)	15 (88.2)	19 (100)	32 (86.5)	140 (92.1)	46 (92.0)	103 (91.2)	83 (93.3)	186 (92.1)
엠펙스		1 (3.8)						1 (2.7)	2 (1.3)		1 (0.9)	1 (1.1)	2 (1.0)
다 음		1 (3.8)	6 (9.8)		1 (25.0)	2 (11.8)		4 (10.8)	10 (6.6)	4 (8.0)	9 (8.0)	5 (5.6)	14 (6.9)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3)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의 [그림 3-2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학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7.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장 실습'이 21.3%, '전공실력'이 15.3%, '자격증 취득'이 1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표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단과대학,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학생들의 경우, '어학실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33.6%)의 비율이 여학생들(41.6%) 보다 다소 떨어지는 반면에,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남학생(18.6%)의 비율은 여학생(5.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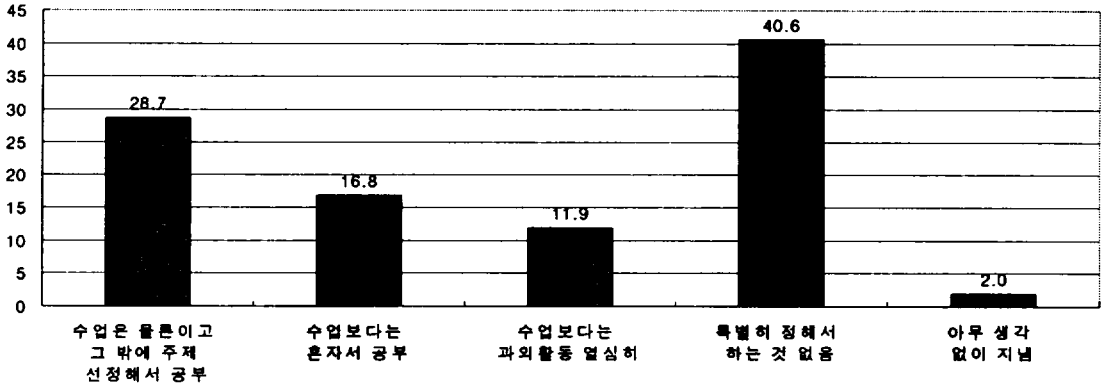
<표 3-21>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전 공 실 력	5 (16.1)	4 (15.4)	4 (6.6)	3 (42.9)	1 (25.0)	3 (17.6)	3 (15.8)	8 (21.6)	24 (15.8)	7 (14.0)	18 (15.9)	13 (14.6)	31 (15.3)
어 학 실 력	14 (45.2)	9 (34.6)	28 (45.9)	2 (28.6)		4 (23.5)	7 (36.8)	11 (29.7)	56 (36.8)	19 (38.0)	38 (33.6)	37 (41.6)	75 (37.1)
자 격 증 취 득	2 (6.5)	4 (15.4)	8 (13.1)		1 (25.0)	4 (23.5)	1 (5.3)	6 (16.2)	21 (13.8)	5 (10.0)	21 (18.6)	5 (5.6)	26 (12.9)
현 장 실 습	10 (32.3)	6 (23.1)	13 (21.3)	1 (14.3)		1 (5.9)	5 (26.3)	7 (18.9)	30 (19.7)	13 (26.0)	20 (17.7)	23 (25.8)	43 (21.3)
pc 사용능력			2 (3.3)					2 (5.4)	3 (2.0)	1 (2.0)	3 (2.7)	1 (1.1)	4 (2.0)
면 접 및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		2 (7.7)	4 (6.6)		1 (25.0)	1 (5.9)	1 (5.3)	2 (5.4)	10 (6.6)	1 (2.0)	5 (4.4)	6 (6.7)	11 (5.4)
취업 관련기관 정보 부족			1 (1.6)		1 (25.0)	1 (5.9)			2 (1.3)	1 (2.0)	2 (1.8)	1 (1.1)	3 (1.5)
취업 관련기관 인적 네트워크		1 (3.8)		1 (14.3)			1 (5.3)		2 (1.3)	1 (2.0)	2 (1.8)	1 (1.1)	3 (1.5)
아르바이트 경 력						1 (5.9)			1 (0.7)		1 (0.9)		1 (0.5)
어 학 연 수 경 력			1 (1.6)			2 (11.8)			1 (0.7)	2 (4.0)	2 (1.8)	1 (1.1)	3 (1.5)
외 모								1 (2.7)	1 (0.7)		1 (0.9)		1 (0.5)
무 응 답							1 (5.3)		1 (0.7)			1 (1.1)	1 (0.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4) 면학태도

면학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3-2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2]을 보면 40.6%의 학생들이 '특별히 정해서 공부하지 않고' 닳치는 대로 공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수업은 물론이고 그 밖에 주제를 선정해서 공부'한다는 학생이 28.7%, '수업 보다는 혼자서 공부'한다는 학생이 1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2] 면학태도

면학태도에서는 단과대학, 학년, 성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사범대의 경우에는 다른 단과대학과는 달리 '수업은 물론이고 그 밖의 주제를 선정해서 공부'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71.4%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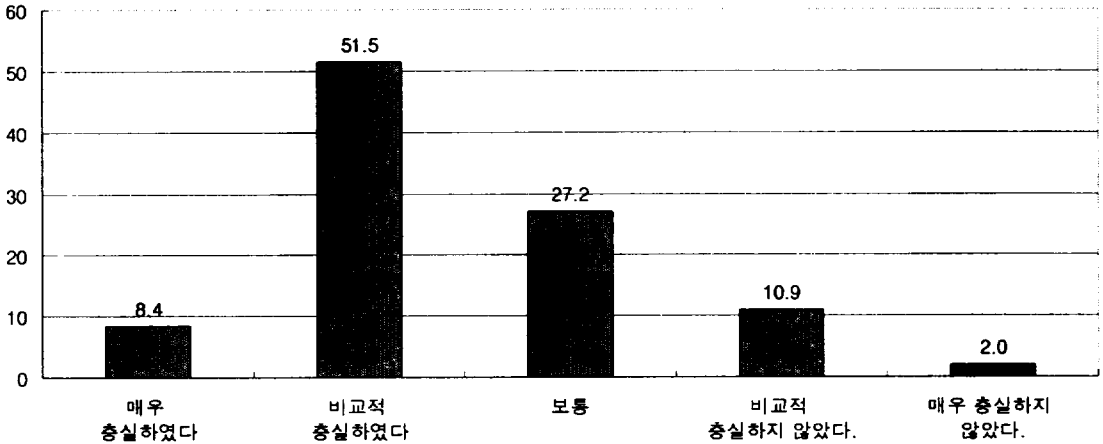
<표 3-22> 면학태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수업은 물론이고 그 밖에 주제 선정해서 공부	10 (32.3)	6 (23.1)	19 (31.1)	5 (71.4)	1 (25.0)	4 (23.5)	4 (21.1)	9 (24.3)	47 (30.9)	11 (22.0)	31 (27.4)	27 (30.3)	58 (28.7)
수업 보다는 혼자서 공부	6 (19.4)	5 (19.2)	6 (9.8)	1 (14.3)		2 (11.8)	3 (15.8)	11 (29.7)	23 (15.1)	11 (22.0)	20 (17.7)	14 (15.7)	34 (16.8)
수업 보다는 과외활동 열심히	2 (6.5)	4 (15.4)	6 (9.8)		1 (25.0)	4 (23.5)	3 (15.8)	4 (10.8)	16 (10.5)	8 (16.0)	17 (15.0)	7 (7.9)	24 (11.9)
특별히 정해서 하는 것 없음	13 (41.9)	11 (42.3)	29 (47.5)	1 (14.3)	2 (50.0)	7 (41.2)	9 (47.4)	10 (27.0)	63 (41.4)	19 (38.0)	42 (37.2)	40 (44.9)	82 (40.6)
아무 생각 없이 지냄			1 (1.6)					3 (8.1)	3 (2.0)	1 (2.0)	3 (2.7)	1 (1.1)	4 (2.0)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5) 대학생활 충실여부

대학생활 충실여부는 아래의 [그림 3-23]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비교적 충실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전체의 5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7.2%로 나타났다.



[그림 3-23] 대학생활 충실여부

대학생활 충실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표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 학년, 성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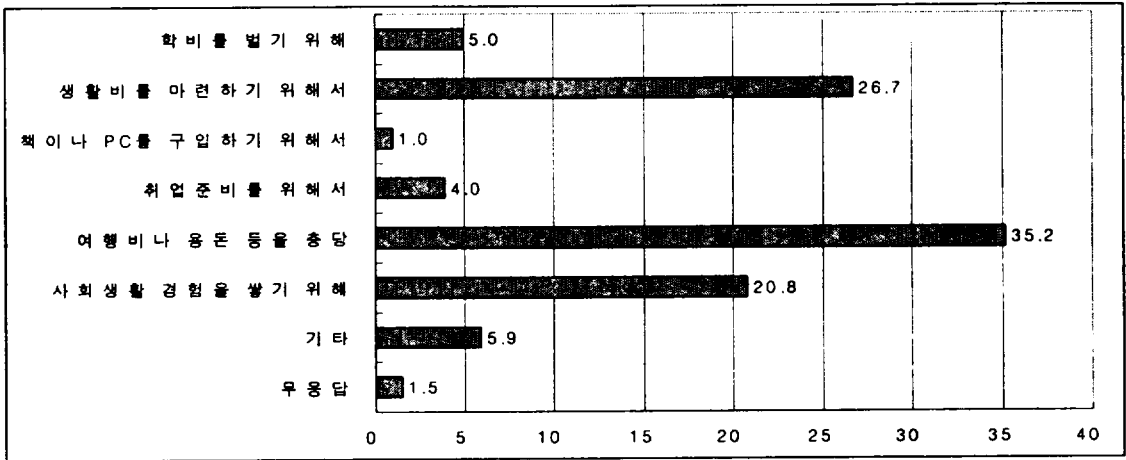
<표 3-23> 대학생활 충실여부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매우 충실	1 (3.2)	3 (11.5)	6 (9.8)	2 (28.6)		1 (5.9)	1 (5.3)	3 (8.1)	12 (7.9)	5 (10.0)	11 (9.7)	6 (6.7)	17 (8.4)
비교적 충실	16 (51.6)	16 (61.5)	30 (49.2)	5 (71.4)	2 (50.0)	9 (52.9)	10 (52.6)	16 (43.2)	82 (53.9)	22 (44.0)	58 (51.3)	46 (51.7)	104 (51.5)
보통	10 (32.3)	6 (23.1)	16 (26.2)		1 (25.0)	4 (23.5)	6 (31.6)	12 (32.4)	41 (27.0)	14 (28.0)	29 (25.7)	26 (29.2)	55 (27.2)
비교적 충실하지 않았다	3 (9.7)	1 (3.8)	8 (13.1)		1 (25.0)	2 (11.8)	2 (10.5)	5 (13.5)	15 (9.9)	7 (14.0)	13 (11.5)	9 (10.1)	22 (10.9)
매우 충실하지 않았다	1 (3.2)		1 (1.6)			1 (5.9)		1 (2.7)	2 (1.3)	2 (4.0)	2 (1.8)	2 (2.2)	4 (2.0)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6)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은 아래의 [그림 3-2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행비나 용돈 등을 충당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26.7%,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20.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4]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

<표 3-24>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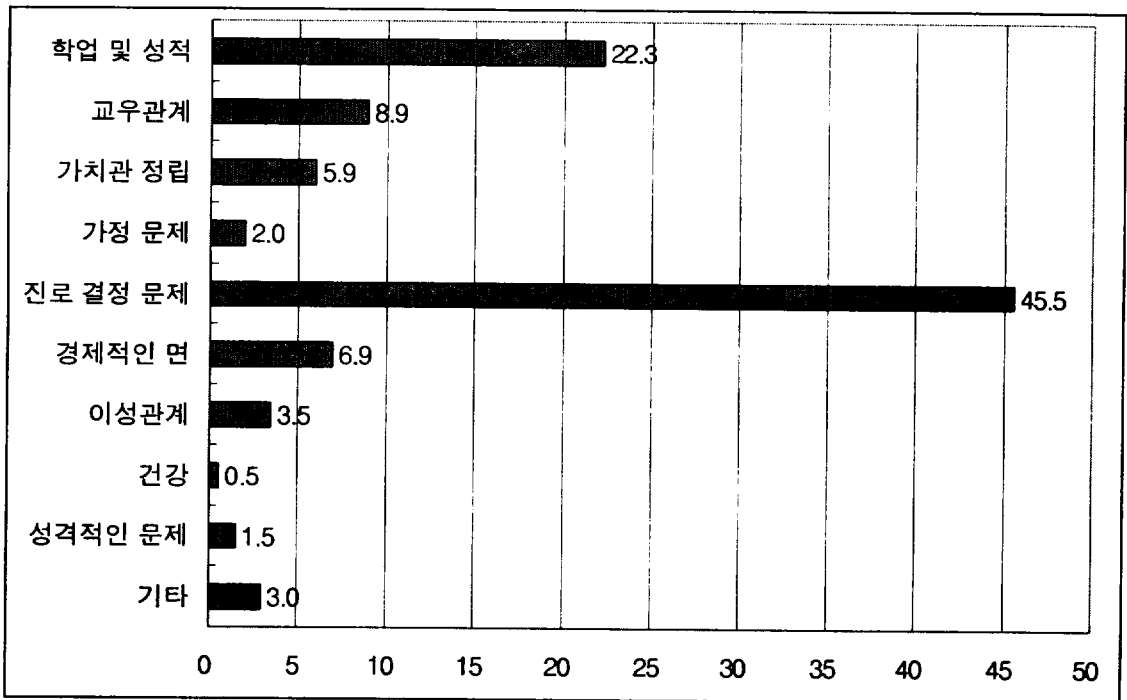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학비를 벌기 위해	1 (3.2)	2 (7.7)	2 (3.3)			2 (11.8)		3 (8.1)	6 (3.9)	4 (8.0)	5 (4.4)	5 (5.6)	10 (5.0)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6 (19.4)	9 (34.6)	9 (14.8)	3 (42.9)	1 (25.0)	6 (35.3)	4 (21.1)	16 (43.2)	41 (27.0)	13 (26.0)	38 (33.6)	16 (18.0)	54 (26.7)
책이나 PC를 구입하기 위해서						1 (5.9)		1 (2.7)	2 (1.3)		2 (1.8)		2 (1.0)
취업준비를 위해서	2 (6.5)	1 (3.8)	2 (3.3)				2 (10.5)	1 (2.7)	7 (4.6)	1 (2.0)	5 (4.4)	3 (3.4)	8 (4.0)
여행비나 용돈 등을 충당	14 (45.2)	9 (34.6)	26 (42.6)	2 (28.6)	1 (25.0)	4 (23.5)	7 (36.8)	8 (21.6)	52 (34.2)	19 (38.0)	31 (27.4)	40 (44.9)	71 (35.2)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	7 (22.6)	3 (11.5)	16 (26.2)	1 (14.3)		4 (23.5)	6 (31.6)	5 (13.5)	31 (20.4)	11 (22.0)	22 (19.5)	20 (22.5)	42 (20.8)
기타	1 (3.2)	1 (3.8)	6 (9.8)	1 (14.3)	1 (25.0)			2 (5.4)	10 (6.6)	2 (4.0)	7 (6.2)	5 (5.6)	12 (5.9)
무응답		1 (3.8)			1 (25.0)			1 (2.7)	3 (2.0)		3 (2.7)		3 (1.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표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 학교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에 대한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의 경우, 33.6%로 여학생의 18.0%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행이나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의 경우 27.4%였으나, 여학생들은 44.9%로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7) 대학생활에서 어려웠던 점

대학생활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3-25]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진로결정 문제'가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 및 성적'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은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5] 대학생활에서 어려웠던 점

대학생활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표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 학년, 성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대학생 생활에서 어려웠던 점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학업 및 성적	9 (29.0)	4 (15.4)	9 (14.8)	1 (14.3)	1 (25.0)	6 (35.3)	8 (42.1)	7 (18.9)	32 (21.1)	13 (26.0)	26 (23.0)	19 (21.3)	45 (22.3)
교우 관계	5 (16.1)	5 (19.2)	4 (6.6)			1 (5.9)	1 (5.3)	2 (5.4)	14 (9.2)	4 (8.0)	10 (8.8)	8 (9.0)	18 (8.9)
가치관 정립	1 (3.2)	1 (3.8)	3 (4.9)		1 (25.0)		1 (5.3)	5 (13.5)	11 (7.2)	1 (2.0)	7 (6.2)	5 (5.6)	12 (5.9)
가정 문제	1 (3.2)		2 (3.3)				1 (5.3)		4 (2.6)		3 (2.7)	1 (1.1)	4 (2.0)
진로 결정 문제	12 (38.7)	12 (46.2)	35 (57.4)	4 (57.1)	1 (25.0)	7 (41.2)	6 (31.6)	15 (40.5)	69 (45.4)	23 (46.0)	48 (42.5)	44 (49.4)	92 (45.5)
경제적인 면	3 (9.7)	1 (3.8)	4 (6.6)		1 (25.0)	2 (11.8)	1 (5.3)	2 (5.4)	8 (5.3)	6 (12.0)	8 (7.1)	6 (6.7)	14 (6.9)
이성 관계		1 (3.8)	4 (6.6)	1 (14.3)				1 (2.7)	6 (3.9)	1 (2.0)	3 (2.7)	4 (4.5)	7 (3.5)
건강								1 (2.7)	1 (0.7)		1 (0.9)		1 (0.5)
성격 적 인 계		1 (3.8)					1 (5.3)	1 (2.7)	2 (1.3)	1 (2.0)	1 (0.9)	2 (2.2)	3 (1.5)
기 타		1 (3.8)		1 (14.3)	1 (5.9)			3 (8.1)	5 (3.3)	1 (2.0)	6 (5.3)		6 (3.0)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8) 대학생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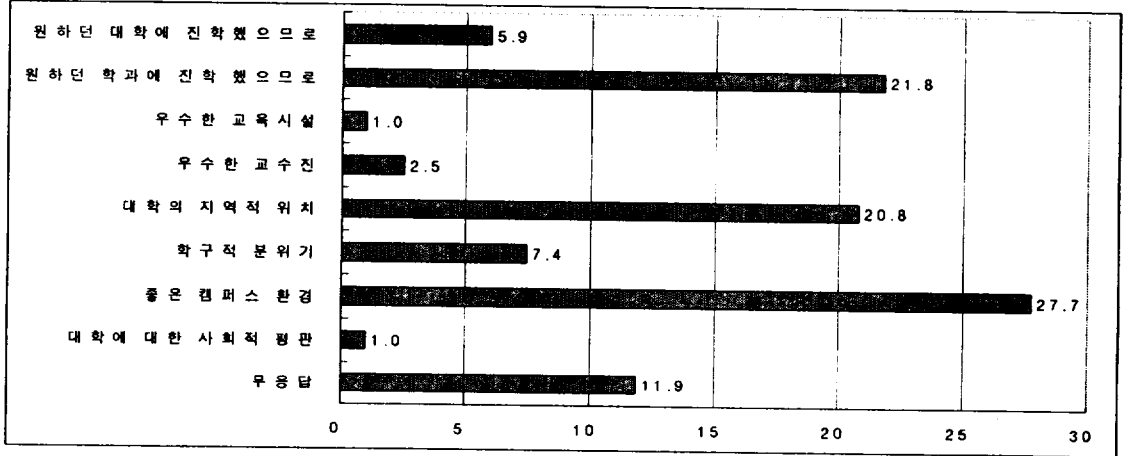
학생들이 대학생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는 아래의 [그림 3-26]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좋은 캠퍼스 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7.7%, '원하던 학과에 진학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1.8%, '대학의 지역적 위치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대학생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25.8%), 사범대(42.9), 해양대(35.3%)의 경우, 타 단과대학과는 달리 원하던 대학에 진학했으므로 대학생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4학년의 경우, '좋은 캠퍼스 환경 때문'에 대학생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하던 학과에 진학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18.0%인 반면에, 3학년들의 경우에는 '대학의 지역적 위치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5.0%로 가장 많았고, '좋은 캠퍼스 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

생이 23.7%인 것으로 4학년 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6]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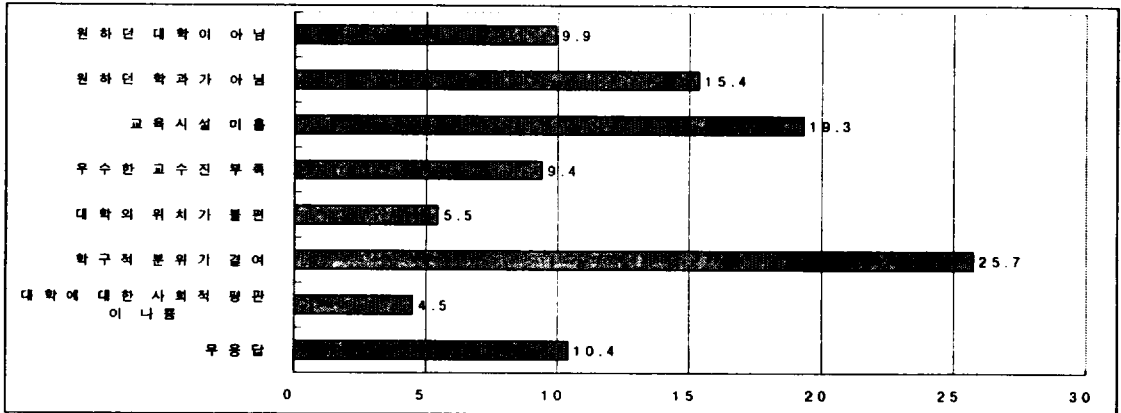
<표 3-26>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원하던 대학에 진학 했으므로	8 (25.8)	1 (3.8)	4 (6.6)	3 (42.9)	1 (25.0)	6 (35.3)	2 (10.5)	1 (2.7)	7 (4.6)	5 (10.0)	9 (8.0)	3 (3.4)	12 (5.9)
원하던 학과에 진학 했으므로		4 (15.4)	17 (27.9)			2 (11.8)		7 (18.9)	35 (23.0)	9 (18.0)	28 (24.8)	16 (18.0)	44 (21.8)
우 수 한 교육 시설		1 (3.8)	1 (1.6)						1 (0.7)	1 (2.0)	2 (1.8)		2 (1.0)
우수한 교수진	1 (3.2)		3 (4.9)					1 (2.7)	3 (2.0)	2 (4.0)	1 (0.9)	4 (4.5)	5 (2.5)
대학의 지역적 위치	5 (16.1)	8 (30.8)	5 (8.2)	2 (28.6)	2 (50.0)	1 (5.9)	10 (52.6)	9 (24.3)	38 (25.0)	4 (8.0)	27 (23.9)	15 (16.9)	42 (20.8)
학구적 분위기		2 (7.7)	4 (6.6)			2 (11.8)	3 (15.8)	4 (10.8)	11 (7.2)	4 (8.0)	9 (8.0)	6 (6.7)	15 (7.4)
좋은 캠퍼스 환경	11 (35.5)	7 (26.9)	20 (32.8)	1 (14.3)		5 (29.4)	2 (10.5)	10 (27.0)	36 (23.7)	20 (40.0)	27 (23.9)	29 (32.6)	56 (27.7)
대학에 대한 사회적 평판							1 (5.3)	1 (2.7)	1 (0.7)	1 (2.0)	2 (1.8)		2 (1.0)
무 응 답	6 (19.4)	3 (11.5)	7 (11.5)	1 (14.3)	1 (25.0)	1 (5.9)	1 (5.3)	4 (10.8)	20 (13.2)	4 (8.0)	8 (7.1)	16 (18.0)	24 (11.9)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9) 대학생활에 불만족한 이유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불만족한 이유는 아래의 [그림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구적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시설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9.3%, '원하던 학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대학생활에 불만족한 이유

<표 3-27> 대학생활에 불만족한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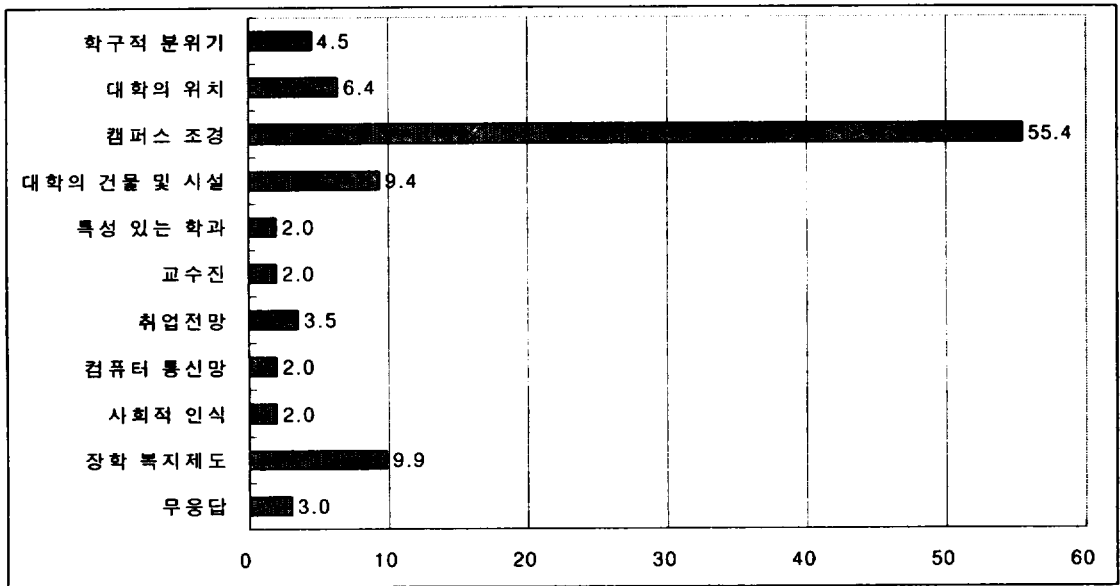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원 하 던 대학이 아님	3 (9.7)	4 (15.4)	4 (6.6)		2 (50.0)	6 (35.3)	5 (26.3)	4 (10.8)	17 (11.2)	3 (6.0)	9 (8.0)	11 (12.4)	20 (9.9)
원 하 던 학과가 아님	4 (12.9)	2 (7.7)	9 (14.8)			1 (5.9)	4 (21.1)	4 (10.8)	23 (15.1)	8 (16.0)	10 (8.8)	21 (23.6)	31 (15.4)
교 육 시 설 미흡	9 (29.0)	7 (26.9)	5 (8.2)		1 (25.0)	1 (5.9)	2 (10.5)	14 (37.8)	27 (17.8)	12 (24.0)	25 (22.1)	14 (15.7)	39 (19.3)
우 수 한 교수진 부족	4 (12.9)		9 (14.8)	2 (28.6)		2 (11.8)		3 (8.1)	15 (9.9)	4 (8.0)	12 (10.6)	7 (7.9)	19 (9.4)
대 학 의 위치가 불편	1 (3.2)		5 (8.2)			4 (23.5)	1 (5.3)	2 (5.4)	8 (5.3)	3 (6.0)	6 (5.3)	5 (5.6)	11 (5.5)
학 구 적 분위기 결여	6 (19.4)	9 (34.6)	20 (32.8)	3 (42.9)			3 (15.8)	7 (18.9)	38 (25.0)	14 (28.0)	33 (29.2)	19 (21.3)	52 (25.7)
대학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나쁨		1 (3.8)	4 (6.6)	1 (14.3)		2 (11.8)	1 (5.3)		5 (3.3)	4 (8.0)	6 (5.3)	3 (3.4)	9 (4.5)
무 응 답	4 (12.9)	3 (11.5)	5 (8.2)	1 (14.3)	1 (25.0)	1 (5.9)	3 (15.8)	3 (8.1)	19 (12.5)	2 (4.0)	12 (10.6)	9 (10.1)	21 (10.4)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불만족한 이유는 단과대학로 살펴보면 <표 3-27>에 나타난 것처럼, 생명대(50.0%), 해양대(41.2%), 자연대(47.4%)로 '원하던 대학이 아니거나 원하던 학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타 대학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원하던 학과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여학생(23.6%)이 남학생(8.8%)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10) 우리 대학의 강점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대학의 강점은 아래의 [그림 3-2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캠퍼스 조경'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우리 대학의 강점

단과대학별로 우리 대학의 강점을 살펴보면, 생명대의 경우에는 '캠퍼스 조경'(25.0%) 보다 '장학 복지제도'(50.0%)를 강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대의 경우에는 '캠퍼스 조경'(23.5%)과 '대학의 위치'(23.5%) 모두를 우리 대학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를 해보면, '캠퍼스 조경'을 우리 대학의 강점으로 응답한 학생수가 여학생들의 경우에 61.8%인 반면에,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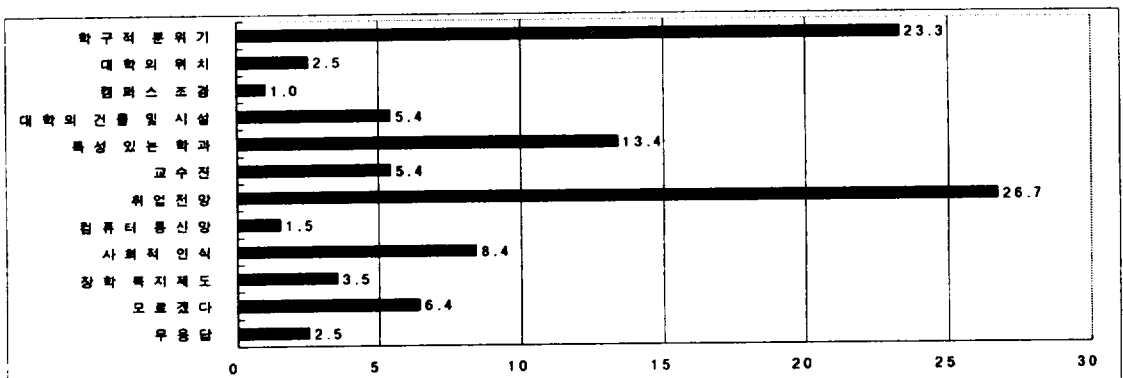
<표 3-28> 우리 대학의 강점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학구적 분위기		2 (7.7)	5 (8.2)			1 (5.9)		1 (2.7)	8 (5.3)	1 (2.0)	7 (6.2)	2 (2.2)	9 (4.5)
대학의 위치	3 (9.7)		1 (1.6)			4 (23.5)	2 (10.5)	3 (8.1)	8 (5.3)	5 (10.0)	9 (8.0)	4 (4.5)	13 (6.4)
캠퍼스 조경	21 (67.7)	16 (61.5)	32 (52.5)	5 (71.4)	1 (25.0)	4 (23.5)	9 (47.4)	24 (64.9)	84 (55.3)	28 (56.0)	57 (50.4)	55 (61.8)	112 (55.4)
대학의 건물 및 시설	2 (6.5)	2 (7.7)	12 (19.7)			1 (5.9)	1 (5.3)	1 (2.7)	14 (9.2)	5 (10.0)	12 (10.6)	7 (7.9)	19 (9.4)
특성 있는 학과			1 (1.6)			1 (5.9)	1 (5.3)	1 (2.7)	3 (2.0)	1 (2.0)	2 (1.8)	2 (2.2)	4 (2.0)
교수진		1 (3.8)	2 (3.3)		1 (25.0)				3 (2.0)	1 (2.0)	2 (1.8)	2 (2.2)	4 (2.0)
취업전망		1 (3.8)	1 (1.6)			1 (5.9)		4 (10.8)	6 (3.9)	1 (2.0)	5 (4.4)	2 (2.2)	7 (3.5)
컴퓨터통신망		1 (3.8)					1 (5.3)	2 (5.4)	4 (2.6)		2 (1.8)	2 (2.2)	4(2.0)
사회적 인식	1 (3.2)	1 (3.8)	2 (3.3)						4 (2.6)		2 (1.8)	2 (2.2)	4 (2.0)
장학복지제도	3 (9.7)	2 (7.7)	3 (4.9)	1 (14.3)	2 (50.0)	3 (17.6)	5 (26.3)	1 (2.7)	14 (9.2)	6 (12.0)	9 (8.0)	11 (12.4)	20 (9.9)
무응답	1 (3.2)		2 (3.3)	1 (14.3)		2 (11.8)			4 (2.6)	2 (4.0)	6 (5.3)		6 (3.0)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11) 우리 대학의 약점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대학의 약점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전망'이 26.7%, '학구적 분위기'가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 우리 대학의 약점

단과대학별로 우리 대학의 강점을 살펴보면, 해양대의 경우, '학구적인 분위기'를 우리 대학 약점으로 본 학생이 5.9%로 다른 단과대학들 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에 '특성있는 학과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3.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연대의 경우에는 '취업 전망'이 우리 대학의 약점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성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29> 우리 대학의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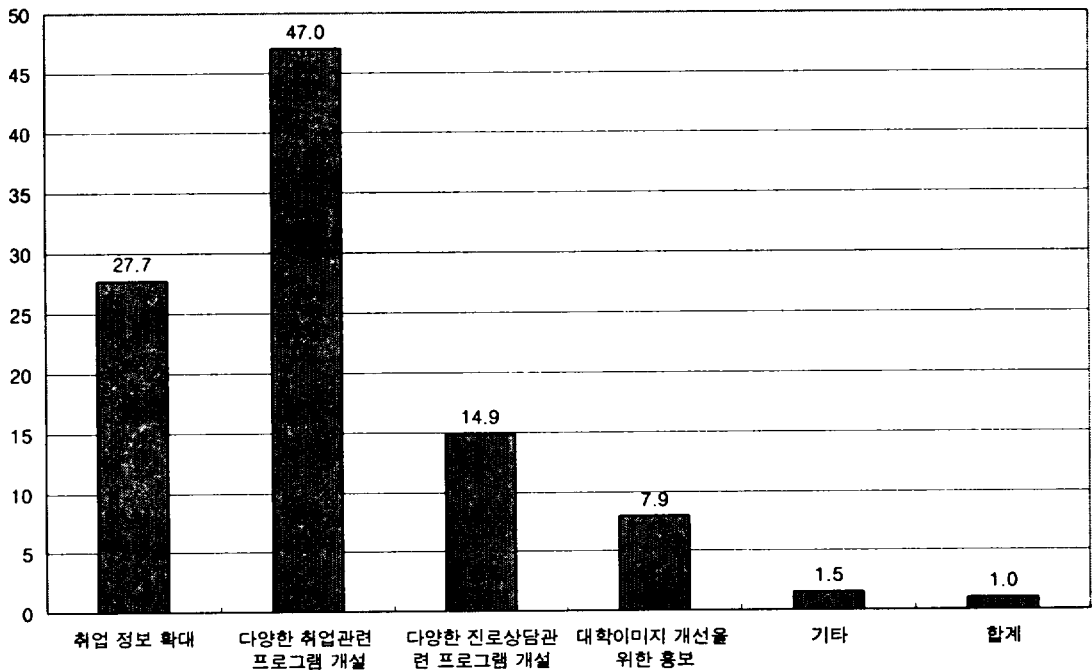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학 구 적 분 위 기	8 (25.8)	9 (34.6)	17 (27.9)	3 (42.9)		1 (5.9)	3 (15.8)	6 (16.2)	33 (21.7)	14 (28.0)	23 (20.4)	24 (27.0)	47 (23.3)
대학의 위치			1 (1.6)		1 (25.0)			3 (8.1)	4 (2.6)	1 (2.0)	3 (2.7)	2 (2.2)	5 (2.5)
캠퍼스 조경						1 (5.9)		1 (2.7)	1 (0.7)	1 (2.0)	2 (1.8)		2 (1.0)
대학의 건물 및 시설	2 (6.5)	1 (3.8)	2 (3.3)		1 (25.0)		1 (5.3)	4 (10.8)	10 (6.6)	1 (2.0)	7 (6.2)	4 (4.5)	11 (5.4)
특 성 있 는 학 과	6 (19.4)	3 (11.5)	5 (8.2)		1 (25.0)	4 (23.5)	1 (5.3)	7 (18.9)	22 (14.5)	5 (10.0)	11 (9.7)	16 (18.0)	27 (13.4)
교 수 진	4 (12.9)		4 (6.6)	1 (14.3)	1 (25.0)			1 (2.7)	4 (2.6)	7 (14.0)	6 (5.3)	5 (5.6)	11 (5.4)
취업 전망	5 (16.1)	7 (26.9)	18 (29.5)	2 (28.6)		3 (17.6)	12 (63.2)	7 (18.9)	44 (28.9)	10 (20.0)	30 (26.5)	24 (27.0)	54 (26.7)
컴 퓨 터 통 신 망		1 (3.8)	1 (1.6)					1 (2.7)	3 (2.0)		2 (1.8)	1 (1.1)	3 (1.5)
사회적 인식	2 (6.5)	4 (15.4)	5 (8.2)	1 (14.3)		3 (17.6)	2 (10.5)		12 (7.9)	5 (10.0)	11 (9.7)	6 (6.7)	17 (8.4)
장 학 복 지 제 도	2 (6.5)		1 (1.6)			2 (11.8)		2 (5.4)	5 (3.3)	2 (4.0)	4 (3.5)	3 (3.4)	7 (3.5)
모 르 겠 다	1 (3.2)	1 (3.8)	5 (8.2)			2 (11.8)		4 (10.8)	10 (6.6)	3 (6.0)	10 (8.8)	3 (3.4)	13 (3.5)
무 응 답	1 (3.2)		2 (3.3)			1 (5.9)		1 (2.7)	4 (2.6)	1 (2.0)	4 (3.5)	1 (1.1)	5 (6.4)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4.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그림 3-3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원하는 학생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정보 확대'를 기대하는 학생이 27.7%, '다양한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원하는 학생이 14.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0]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들은<표 3-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의 경우, '취업정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1.9%인 반면에, 4학년들의 경우에는 16.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성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다양한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9.7%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21.3%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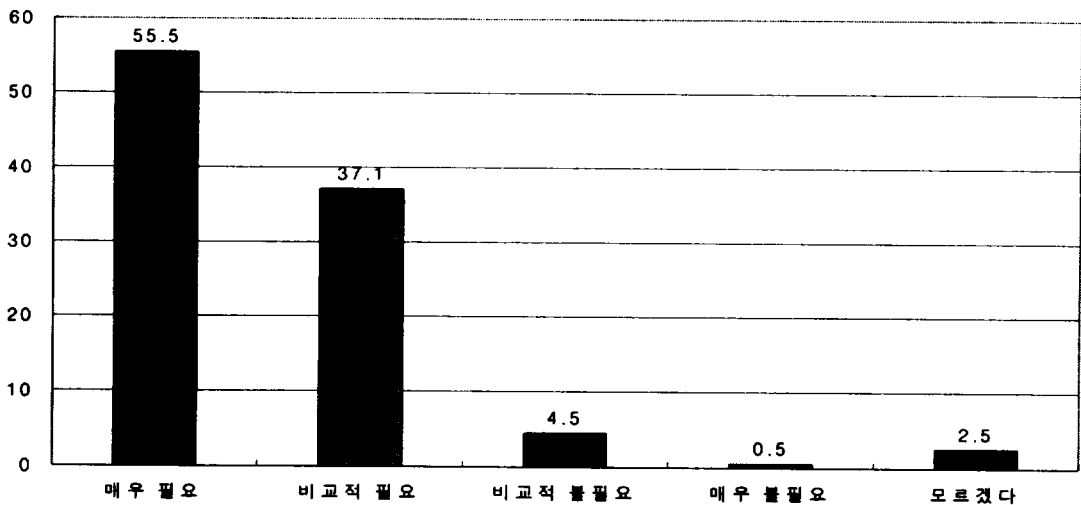
<표 3-30>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취업 정보 확대	10 (32.3)	8 (30.8)	14 (23.0)	3 (42.9)	1 (25.0)	3 (17.6)	5 (26.3)	12 (32.4)	48 (31.6)	8 (16.0)	36 (31.9)	20 (22.5)	56 (27.7)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 개설	14 (45.2)	12 (46.2)	33 (54.1)	2 (28.6)	2 (50.0)	4 (23.5)	8 (42.1)	20 (54.1)	69 (45.4)	26 (52.0)	55 (48.7)	40 (44.9)	95 (47.0)
다 양 한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 개설	5 (16.1)	4 (15.4)	8 (13.1)	1 (14.3)	1 (25.0)	4 (23.5)	3 (15.8)	4 (10.8)	22 (14.5)	8 (16.0)	11 (9.7)	19 (21.3)	30 (14.9)
대 학 이 미 지 개선을 위한 홍보		2 (7.7)	5 (8.2)			6 (35.3)	3 (15.8)		10 (6.6)	6 (12.0)	7 (6.2)	9 (10.1)	16 (7.9)
기 타	1 (3.2)			1 (14.3)				1 (2.7)	2 (1.3)	1 (2.0)	3 (2.7)		3 (1.5)
합 계	1 (3.2)		1 (1.6)						1 (0.7)	1 (2.0)	1 (0.9)	1 (1.1)	2 (1.0)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2) 진로상담에 대한 필요성 여부

학과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가 아래의 [그림 3-3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1] 진로상담에 대한 필요성 여부

[그림 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상담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5.5%,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92.6%의 학생들이 소속학과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을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상담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단과대별로 비교해 보았을때, <표 3-31>에서 보는 것 처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보면 3학년은 50.0%였으나, 4학년의 경우에는 72.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성별로 비교해 보면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학생(60.7%)들이 남학생(51.3%)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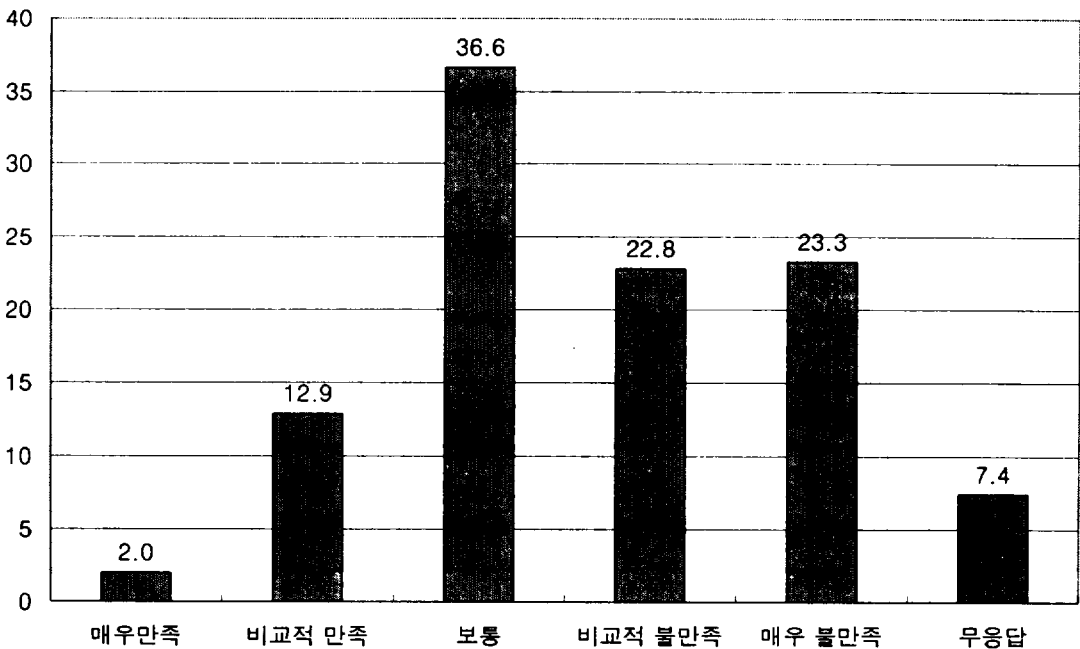
<표 3-31> 진로상담에 대한 필요성 여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매우 필요	18 (58.1)	14 (53.8)	39 (63.9)	5 (71.4)	1 (25.0)	7 (41.2)	11 (57.9)	17 (45.9)	76 (50.0)	36 (72.0)	58 (51.3)	54 (60.7)	112 (55.5)
비 교 적 필 요	10 (32.3)	11 (42.3)	21 (34.4)	1 (14.3)	3 (75.0)	6 (35.3)	7 (36.8)	16 (43.2)	65 (42.8)	10 (20.0)	43 (38.1)	32 (36.0)	75 (37.1)
비 교 적 불 필 요	1 (3.2)	1 (3.8)		1 (14.3)		1 (5.9)	1 (5.3)	4 (10.8)	7 (4.6)	2 (4.0)	8 (7.1)	1 (1.1)	9 (4.5)
매 우 불 필 요	1 (3.2)								1 (0.7)		1 (0.9)		1 (0.5)
모 르 겠 다	1 (3.2)		1 (1.6)			3 (17.6)			3 (2.0)	2 (4.0)	3 (2.7)	2 (2.2)	5 (2.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3)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23.3%, '비교적 불만족'이 2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 대학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2]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

단과대학별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표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법정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0.8%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인문대의 경우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5.2%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3학년의 경우, '비교적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학생과 '매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42.8%인 반면에, 4학년은 5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성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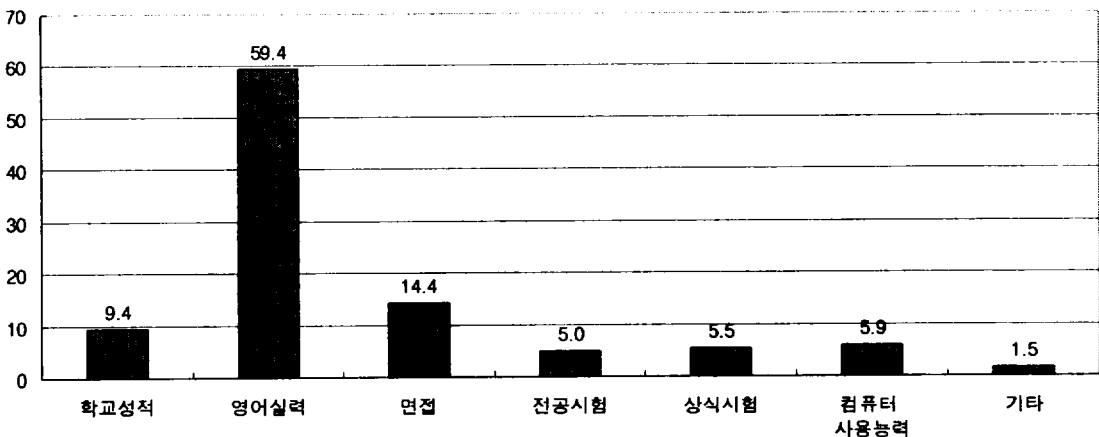
<표 3-32>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매우 만족		1 (3.8)	1 (1.6)				1 (5.3)	1 (2.7)	4 (2.6)		3 (2.7)	1 (1.1)	4 (2.0)
비교적 만족	1 (3.2)	8 (30.8)	5 (8.2)	2 (28.6)		3 (17.6)	3 (15.8)	4 (10.8)	23 (15.1)	3 (6.0)	15 (13.3)	11 (12.4)	26 (12.9)
보통	10 (32.3)	6 (23.1)	25 (41.0)	4 (57.1)	3 (75.0)	8 (47.1)	6 (31.6)	12 (32.4)	57 (37.5)	17 (34.0)	44 (38.9)	30 (33.7)	74 (36.6)
비교적 불만	6 (19.4)	6 (23.1)	10 (16.4)		1 (25.0)	4 (23.5)	6 (31.6)	13 (35.1)	38 (25.0)	8 (16.0)	23 (20.4)	23 (25.8)	46 (22.8)
매우 불만	14 (45.2)	5 (19.2)	18 (29.5)	1 (14.3)		1 (5.9)	3 (15.8)	5 (13.5)	27 (17.8)	20 (40.0)	24 (21.2)	23 (25.8)	47 (23.3)
무응답			2 (3.3)			1 (5.9)		2 (5.4)	3 (2.0)	2 (4.0)	4 (3.5)	1 (1.1)	15 (7.4)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4) 취업할 때 자신없는 분야

학생들이 취업할 때 자신없는 분야에 대한 설문결과는 다음 [그림 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 실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면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4%, '학교 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4%, '학교 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3] 취업할 때 자신없는 분야

단과대별로 취업할 때 자신없는 분야를 비교해보면 <표 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학년의 경우에 '면접'이 자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17.1%인 반면에, 4학년의 경우에는 6.0%의 학생들만 '면접'이 자신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가 자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68.1%)들이 여학생(48.3%)들 보다 많은 반면에, '면접'이 자신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여학생(20.2%)이 남학생(9.7%)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취업할 때 자신없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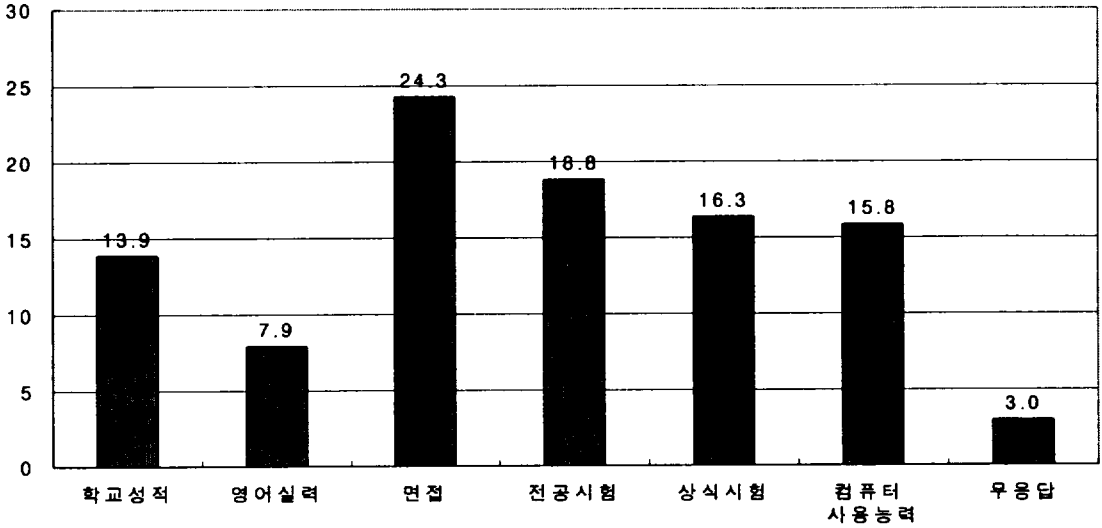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학교 성적	4 (12.9)		5 (8.2)	2 (28.6)		1 (5.9)	4 (21.1)	3 (8.1)	13 (8.6)	6 (12.0)	11 (9.7)	8 (9.0)	19 (9.4)
영어 실력	14 (45.2)	18 (69.2)	41 (67.2)	4 (57.1)	2 (50.0)	11 (64.7)	9 (47.4)	21 (56.8)	88 (57.9)	32 (64.0)	77 (68.1)	43 (48.3)	120 (59.4)
면 접	6 (19.4)	7 (26.9)	5 (8.2)		1 (25.0)	2 (11.8)	1 (5.3)	7 (18.9)	26 (17.1)	3 (6.0)	11 (9.7)	18 (20.2)	29 (14.4)
전 공 시험			3 (4.9)	1 (14.3)		3 (17.6)	2 (10.5)	1 (2.7)	6 (3.9)	4 (8.0)	6 (5.3)	4 (4.5)	10 (5.0)
상 식 시험	2 (6.5)	1 (3.8)	4 (6.6)					4 (10.8)	9 (5.9)	2 (4.0)	3 (2.7)	8 (9.0)	11 (5.5)
컴 퓨 터 사 용 능 령	5 (16.1)		3 (4.9)		1 (25.0)		3 (15.8)		9 (5.9)	3 (6.0)	4 (3.5)	8 (9.0)	12 (5.9)
기 타								1 (2.7)	1 (0.7)		1 (0.9)		3 (1.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5) 취업할 때 자신있는 분야

학생들이 취업할 때 자신있는 분야는 [그림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접'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4.3%, '전공시험'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8.8%, '상식시험'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6.3%, '컴퓨터 사용능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할 때 자신있는 분야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 한다기 보다 설문에 참여한 개인들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취업할 때 자신있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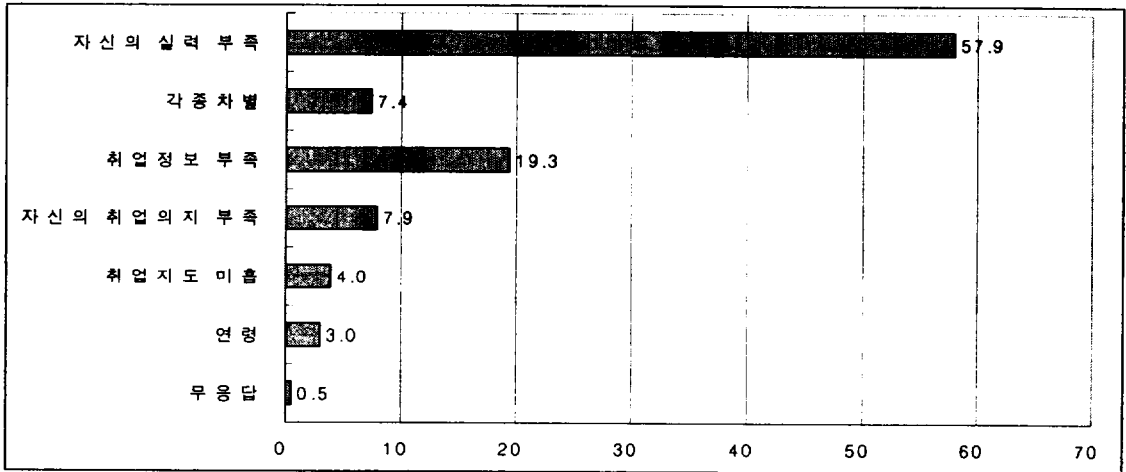
<표 3-34> 취업할 때 자신있는 분야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학교성적	8 (25.8)	2 (7.7)	8 (13.1)	1 (14.3)		1 (5.9)	4 (21.1)	4 (10.8)	18 (11.8)	10 (20.0)	12 (10.6)	16 (18.0)	28 (13.9)
영어실력	4 (12.9)	1 (3.8)	5 (8.2)	2 (28.6)		1 (5.9)	2 (10.5)	1 (2.7)	10 (6.6)	6 (12.0)	6 (5.3)	10 (11.2)	16 (7.9)
면접	6 (19.4)	8 (30.8)	16 (26.2)	3 (42.9)	1 (25.0)	5 (29.4)	4 (21.1)	6 (16.2)	40 (26.3)	9 (18.0)	31 (27.4)	18 (20.2)	49 (24.3)
전공시험	9 (29.0)	3 (11.5)	8 (13.1)	1 (14.3)		3 (17.6)	3 (15.8)	11 (29.7)	29 (19.1)	9 (18.0)	24 (21.2)	14 (15.7)	38 (18.8)
상식시험	3 (9.7)	7 (26.9)	12 (19.7)		3 (75.0)	4 (23.5)	2 (10.5)	2 (5.4)	25 (16.4)	8 (16.0)	19 (16.8)	14 (15.7)	33 (16.3)
컴퓨터 사용능력		5 (19.2)	10 (16.4)			3 (17.6)	3 (15.8)	11 (29.7)	24 (15.8)	8 (16.0)	20 (17.7)	12 (13.5)	32 (15.8)
무응답	1 (3.2)		2 (3.3)				1 (5.3)	2 (5.4)	6 (3.9)		1 (0.9)	5 (5.6)	6 (3.0)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6) 취업할 때 장애 요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할 때의 장애 요인은 아래의 [그림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5] 취업할 때 장애 요인

<표 3-35> 취업할 때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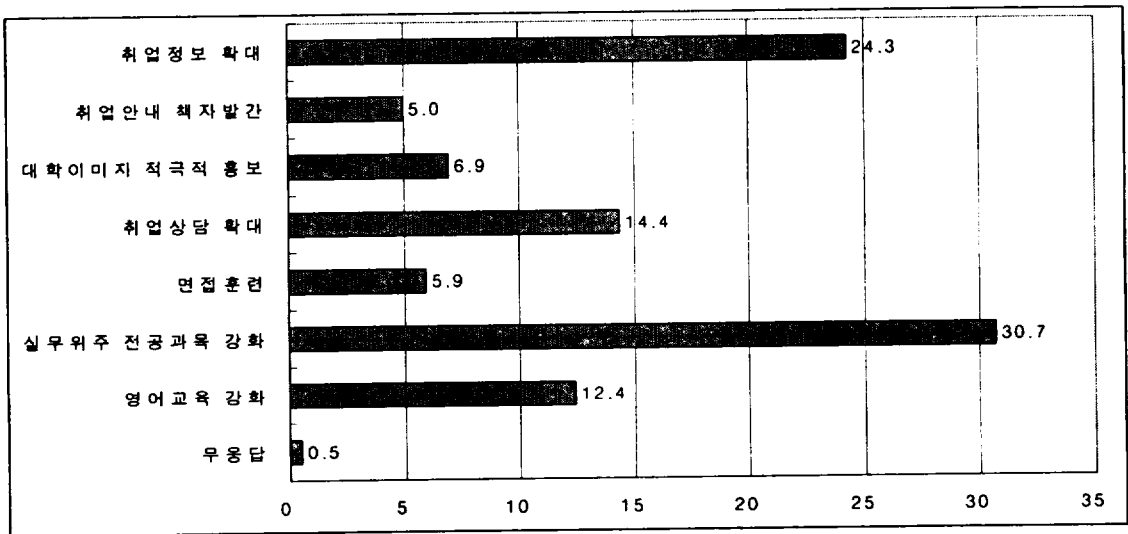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자신의 실력 부족	20 (64.5)	18 (69.2)	34 (55.7)	4 (57.1)	2 (50.0)	10 (58.8)	8 (42.1)	21 (56.8)	83 (54.6)	34 (68.0)	64 (56.6)	53 (59.6)	117 (57.9)
각종 차별	3 (9.7)	2 (7.7)	3 (4.9)			1 (5.9)	3 (15.8)	3 (8.1)	13 (8.6)	2 (4.0)	8 (7.1)	7 (7.9)	15 (7.4)
취업정보 부족	3 (9.7)	3 (11.5)	15 (24.6)	1 (14.3)	1 (25.0)	2 (11.8)	6 (31.6)	8 (21.6)	33 (21.7)	6 (12.0)	23 (20.4)	16 (18.0)	39 (19.3)
자신의 취업의지 부족	4 (12.9)	2 (7.7)	3 (4.9)		1 (25.0)	2 (11.8)	1 (5.3)	3 (8.1)	11 (7.2)	5 (10.0)	6 (5.3)	10 (11.2)	16 (7.9)
취업지도 미흡			3 (4.9)	1 (14.3)		2 (11.8)	1 (5.3)	1 (2.7)	6 (3.9)	2 (4.0)	6 (5.3)	2 (2.2)	8 (4.0)
연령	1 (3.2)	1 (3.8)	3 (4.9)					1 (2.7)	5 (3.3)	1 (2.0)	5 (4.4)	1 (1.1)	6 (3.0)
무응답				1 (14.3)					1 (0.7)		1 (0.9)		1 (0.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취업할 때 장애 요인을 단과대학, 성별로 살펴보면 <표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학년의 경우,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4.6%인 반면에, 4학년은 68.0%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취업을 위해 필요한 노력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그림 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위주의 전공과목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정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3%, '취업상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4.4%, '영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취업을 위해 필요한 노력

우리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표 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38.7%), 법정대(38.5%), 사범대(57.1%), 공과대(35.1%) 학생들은 '실무위주의 전공과목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생명과(50.0%), 해양대(35.3%)는 '취업정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취업상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3학년은 전체의 11.2%인 반면에, 4학년은 24.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남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취업을 위해 필요한 노력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취업정보 확대	7 (22.6)	4 (15.4)	17 (27.9)	1 (14.3)	2 (50.0)	6 (35.3)	6 (31.6)	6 (16.2)	37 (24.3)	12 (24.0)	27 (23.9)	22 (24.7)	49 (24.3)
취업안내 책자발간	2 (6.5)	2 (7.7)	1 (1.6)		1 (25.0)	2 (11.8)	1 (5.3)	1 (2.7)	8 (5.3)	2 (4.0)	8 (7.1)	2 (2.2)	10 (5.0)
대학이미지 적극적홍보	1 (3.2)	2 (7.7)	4 (6.6)			3 (17.6)	2 (10.5)	2 (5.4)	12 (7.9)	2 (4.0)	7 (6.2)	7 (7.9)	14 (6.9)
취업상담 확대	4 (12.9)	5 (19.2)	7 (11.5)			3 (17.6)	4 (21.1)	6 (16.2)	17 (11.2)	12 (24.0)	14 (12.4)	15 (16.9)	29 (14.5)
면접훈련	2 (6.5)	2 (7.7)	5 (8.2)				1 (5.3)	2 (5.4)	10 (6.6)	2 (4.0)	6 (5.3)	6 (6.7)	12 (5.9)
실무위주 전공과목 강화	12 (38.7)	10 (38.5)	17 (27.9)	4 (57.1)		2 (11.8)	4 (21.1)	13 (35.1)	49 (32.2)	13 (26.0)	35 (31.0)	27 (30.3)	62 (30.7)
영어교육 강화	2 (6.5)	1 (3.8)	10 (16.4)	2 (28.6)	1 (25.0)	1 (5.9)	1 (5.3)	7 (18.9)	19 (12.5)	6 (12.0)	16 (14.2)	9 (10.1)	25 (12.4)
무응답	1 (3.2)									1 (2.0)		1 (1.1)	1 (0.5)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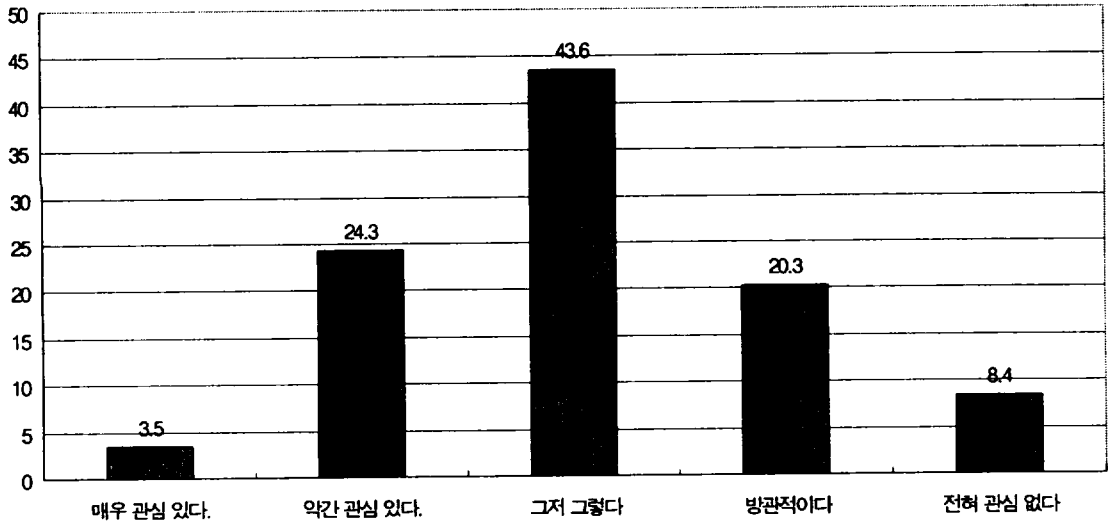
8)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그림 3-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관심 있다'는 응답이 24.3%, '방관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의 경우,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타 대학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정대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 학생들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3%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24.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4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0%인 반면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

<표 3-37 >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3	4	남	여	
매우 관심 있다	1 (3.2)	3 (11.5)	1 (1.6)					2 (5.4)	7 (4.6)		5 (4.4)	2 (2.2)	7 (3.5)
약간 관심 있다	3 (9.7)	9 (34.6)	16 (26.2)	1 (14.3)	1 (25.0)	4 (23.5)	4 (21.1)	11 (29.7)	39 (25.7)	10 (20.0)	30 (26.5)	19 (21.3)	49 (24.3)
그저 그렇다	12 (38.7)	10 (38.5)	25 (41.0)	4 (57.1)	2 (50.0)	8 (47.1)	10 (52.6)	17 (45.9)	69 (45.4)	19 (38.0)	49 (43.4)	39 (43.8)	88 (43.6)
방관적이다	12 (38.7)	4 (15.4)	13 (21.3)		1 (25.0)	1 (5.9)	5 (26.3)	5 (13.5)	26 (17.1)	15 (30.0)	19 (16.8)	22 (24.7)	41 (20.3)
전혀 관심 없다	3 (9.7)		6 (9.8)	2 (28.6)		4 (23.5)		2 (5.4)	11 (7.2)	6 (12.0)	10 (8.8)	7 (7.9)	17 (8.4)
계	31 (100)	26 (100)	61 (100)	7 (100)	4 (100)	17 (100)	19 (100)	37 (100)	152 (100)	50 (100)	113 (100)	89 (100)	202 (100)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조사는 ① 인적사항과 진로선택 ② 취업선택, ③ 취업 관련 대학생활과 면학, ④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229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202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식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는 제주도가 87.4%였으며, 타 시·도는 13.9%로 나타났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부산 및 경남' 출신이 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 및 경기' 출신이 3.5%, '대구 및 경북'이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에 실시된 제주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분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졸업 후의 진로선택을 묻는 설문에 80.2%의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의 경우, 83.6%의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4학년의 경우에는 70%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준비는 '3학년 때 시작한다'는 학생들이 57.8%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학년별로 비교를 해보면 3학년의 경우, 49.3%의 학생들이 '3학년 2학기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4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 1학기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6%, '4학년 2학기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3학년 때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하지만 4학년이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현재 진로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학생의 66.8%가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학년의 경우에는 15.1%에 그친 반면, 4학년은 34%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취업을 목전에 둔 4학년이 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로선택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 가능성이 '반반'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은 47%인 반면에, '대체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과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을 합쳐서 44.5%로 나타나 학생들은 진로선택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지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과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의 경우 42.1%인 반면에, 4학년의 경우에는 5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38.2%인 반면에, 남학생은 4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4학년이 되면서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들이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대상은 '친구나 선배'가 6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친척'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학생이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남녀 모두 '친구나 선배'를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하는 학생이 남자 62.8%, 여자 61.8%로 비슷했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12.4%의 학생들이 진로상담을 하는 대상으로 '가족과 친척'을 들고 있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2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 '취업박람회 설명', '취업캠프', '상담 프로그램', '대학의 취업담당자'와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는 학생들은 남자 13.0%, 여자 8.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상담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 남자는 11.5%, 여자는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경우, 주위의 가까운 가족, 친구 및 선배들과 진로에 관한 고민을 상담하는 반면에,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취업박람회나 취업캠프, 그리고 진로전문가들인 취업담당자, 진로 성숙도를 높여줄 수 있는 진로 관련 상담 프로그램은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 취득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8.3%였으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33.2%의 학생들이 '화목한 가정'이 소중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4.3%의 학생들이 '건강', 21.8%의 학생들이 '경제력'이 소중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6.7%의 학생들만이 '친구사귀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남학생의 경우는 20.4%의 학생들이 '친구사귀기'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할 기업을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았을 때, 인문대와 사범대의 경우, '직업사회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22.6%와 28.6%로 전체평균이 10.9%인 것에 비하여 높은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채용방법으로는 전체의 40.1%가 '공채'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인턴제도'(28.7%), '상시채용'(16.3%) 순으로 나타났다. 사범대(71.4%)와 공과대(37.8%)의 경우에는 '인턴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채용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대학들과는 다른 설문결과를 보였다.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직종으로는 30.7%의 학생들이 '전문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사무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최저 보수는 '연봉 1600만원이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69.3%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학년별로 희망하는 보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연봉 1600만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보면, 3학년의 경우, 73.0%인데 반하여 4학년의 경우에는 58.0%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40.6%의 학생들이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사회인지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2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25.2%, '다양한 업무를 익힐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로는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학생들은 '업무처리'라고 응답한 학생이 23.8%, 다음으로 '리더십과 적극적인 사고'라고 응답한 학생은 22.3%, '성실성'이라고 응답한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안되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9.2%의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학년별로 설문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자신의 적성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학년은 22.4%, 4학년은 10.0%, '인생의 목표가 설정이 안되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3학년이 34.9%인데 반하여 4학년의 경우에는 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4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3학년이 25.0%인데 비하여 4학년은 4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4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실감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이 직업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으로는 전체의 52.0%의 학생들이 직업에 '요구되는 능력'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고 응답한 학생이 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범대와 자연대의 경우에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14.3%, 10.5%로 타 대학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취업할 직업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은 자신들이 할 구체적인 일 보다는 직업에 요구되는 능력(사범대 71.4%, 자연대 68.4%)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곳으로는 50.0%에 이르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배나 친구'로부터 취업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선배나 친구'로부터 얻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2.7%인데 비하여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1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여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자의 경우에는 44.2%인데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에는 57.3%로 남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를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얻는데 비하여 여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검색엔진은 92.1%의 학생들이 '네이버'를 통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어학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7.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장실습'이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학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40.6%의 학생들이 '특별히 정해서 공부하지 않고 닦치는 대로 공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수업은 물론이고 그 밖에 주제를 선정해서 공부'한다는 학생이 28.7%이었다.

대학생활 충실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충실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7.2%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으로 '여행비나 용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의 경우 33.6%로 여학생의 18.0%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행비나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의 경우 27.4%였으나, 여학생들은 44.9%로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여행비나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대학생활에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결과 '진로결정 문제'가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업 및 성적'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은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좋은 캠퍼스 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7.7%, '원하던 학과에 진학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1.8%, '대학의 지역적 위치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학구적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시설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9.3%, '원하던 학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원하던 학과가 아니'라고 응답한 여학생(23.6%)이 남학생(8.8%)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이유로 여학생들의 경우, 23.6%의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과에 다니게 되었는지 이 설문결과로는 알 수 없지만, 추후에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학생들이 생각하는 제주대의 강점은 '캠퍼스 조경'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제주대의 약점으로는 '취업전망'이 26.7%, '학구적 분위기가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어떤 것들을 학교에 기대하는지 묻는 설문에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정보 확대'라고 응답한 학생이 27.7%, '다양한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설문결과 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다양한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9.7%에 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21.3%로 나타났다.

교수가 진로상담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의 결과는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5.5%,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설문결과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교수들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보면 3학년은 50.0%였으나, 4학년의 경우에는 72.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취업을 목전에 둔 4학년 학생들 일수록 학과 교수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학과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23.3%, '비교적 불만족'이

22.8%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2.9%로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과대학별로 교수가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에서 법정대의 경우에는 '비교적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0.8%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인문대의 경우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5.2%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3학년의 경우, '비교적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학생과 '매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42.8%인 반면에, 4학년은 5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이 될수록 학과 교수들로부터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적으므로 불만족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취업할 때, 어떤 분야를 자신 없어하는지를 묻는 설문결과에는 '영어 실력'에 자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면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4%, '학교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설문결과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영어가 자신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68.1%)들이 여학생(48.3%)들 보다 많은 반면에, 면접이 자신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여학생(20.2%)이 남학생(9.7%)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강의나 프로그램 등을 개설할 때,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차이를 두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생들이 취업할 때 자신있어 하는 분야로 '면접'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4.3%로 가장 많았으며, '전공시험'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4.6%인 반면에, 4학년은 68.0%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목전에 둔 4학년이 될수록 '자신의 실력이 부족'함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다.

제주대학교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해야 하는 노력으로는 '실무위주의 전공과목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취업정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3%, '취업상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취업상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3학년은 전체의 11.2%인 반면에, 4학년은 24.0%에 이르고 있다.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관심 있다'는 응답이 24.3%, '방관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는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의 경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과 '방관적이다' 응답한 학생 모두 38.7%로 나타나 이 대학의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타 대학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정대의 경우에는 '약간 관심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4.6%,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8.5%로 교수들이 취업에 대한 관심도가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 학생들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3%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24.3%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4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0%였으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4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은 진로에 대하여 교수들의 관심을 원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결론 및 제언

우리 대학교 3, 4학년들 대상으로 진로의식을 조사·분석한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 후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로선택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지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진로선택 가능성을 3학년 보다는 4학년들이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취업을 목전에 둔 4학년이 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희망하는 보수를 낮추는 등 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눈높이를 낮추어 진로준비를 하므로 4학년들이 진로 가능성을 보다 높게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생활에서 진로 결정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생각할 만큼 진로문제는 학생들에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진로상담을 주로 비전문가인 가족, 친구, 선배들과 하고 있지 취업담당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거나 진로탐색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등에는 참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해서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취업정보의 확대와 다양한 진로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취업할 기업체를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3학년 보다는 4학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잘 파악하

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진로준비는 3학년 때부터 시작하지만 4학년이 되면 보다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4학년이 될수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년별로 진로지도를 다르게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년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파악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진로를 대비하기 위한 면접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고학년이 될수록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진로지도를 할 때, 학년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추어 진로지도를 하여야 하며, 성별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과대학별로 선호하는 취업방법, 취업할 기업체를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선호하는 취업방식, 직업에 대하여 알고 싶은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진로지도에서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성별로도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취업할 때, 어떤 분야를 자신 없어하는지를 묻는 설문결과 남자들의 경우, 영어가 자신 없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학생들은 면접이 자신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학생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강좌 등을 개설할 때,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각각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이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보다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학생들은 직업선택에 있어서 남녀 간의 성차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의 진로지도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와 관련된 고민은 주위의 가까운 가족, 친구 및 선배들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을 목전에 둔 4학년 학생들 일수록 학과 교수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해주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적으므로 불만족 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학과 교수들과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싶어 하고 이들로부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학과 교수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또 때로는 교수들의 추천을 통하여 취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과 교수들은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상담 횟수를 늘여서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원수가 학과별, 학년별로 차이가 커서 설문결과를 학과별로 학년별로 비교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다음에 진로 의식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단과대학별로 인원수를 비슷하게 하여 표집하여 비교한다면 각 단과대학별 특성이 잘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진로의식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으나, 다음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원하던 학과가 아니어서라고 응답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이유로 23.6%의 여학생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과에 다니게 되었는지 이 설문결과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 여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23.6%라는 적지 않은 여학생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학과에 다니고 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구결과가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진로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교육통계편람(2001).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http://std.kedi.re.kr/jcgi-bin/publ/publ_yrbk_frm.htm.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 동문사.
- 김충기(2003).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 한국학술정보.
- 박행모, 문승태(2005). 대학생들의 진로계획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8(2), 157-170.
- 안관수(2006).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와 직업진로진도 방안. 경영교육논총 경논 43집, 173-191, 한국경영교육학회.
- 유계식, 이재창(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9(1), 259-288.
- 이지훈, 이종구(2004). 교육, 훈련 개발 중심의 HRD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31-6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2005). 경제활동인구연보. <http://kosis.nso.go.kr:7001/ups/>.
- Isaacson, L. E., & Brown, D.(2000).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 career development(7th ed.)*. Needham Heights, Massachusetts Allyn & Bacon.

<Abstract>

A Research on The Career Consciousness in 2006
- Focusing on the Juniors and the Senior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

Kim Kyoung-soon, Kim Doo-hwa

The study was done in December 2006 by surveying a number of senior and junior students from department to department at Jeju University, which resulted in 202 responses that have been used in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its focus on the percentage by a frequency analysis utilizing SPSS for Windows 12.0 program.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First, most students were found to anticipate a career after graduation. However, they were not estimating highly of their possibility of choosing their career. The matter the students were most anxious about was their future career, and they took their counsel mostly from their family, friends, and their seniors or juniors.

Second, the element to which the students gave priority when they chose their prospective employer was their own aptitude or interest. Senior students had a better grip of their own aptitude than junior students did. However, it was estimated that a growing number of students were feeling that they were rarely competent as they advanced to become seniors.

Third, various career counseling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and applied to each student according to their peculiarities since they want to get the specific help they need that is different by their gender, status in school, and college of origin.

Fourth, it seems that senior students who are just ahead of their seeking career are being more unsatisfied because they are the ones who need counseling on their career with the professors of their departments, which in reality, they scarcely get. Most students were found to be feeling that their professors were not interested in the students' seeking employment.